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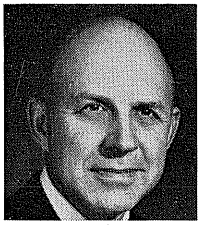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성도의벗 8
1969

홍수를 경고하는 노아

침례의 문.....대관장 말씀 1페이지

십일조.....관리 감독단 말씀10페이지



영감의 멧세지

데오도르 엠. 버튼

십이사도 보조

해의 영광에서 받을 승영의 상태를 단순한 기록하여 이해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영은 지상에서의 의로운 생활로, 덕으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경전은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악을 버리고 모든 선을 굳게 붙들지어라.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라.” (교성98: 11)

아울러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구원에 필요한 의식 집행 사항이 교회기록부에 완전히 기록되어 있나를 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승영은 의로운 생활과 복음이 제시하는 바 제반 필요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두 원리에 얼마나 충실하였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이 아닌 곧 자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영위하며 동시에 합당한 기록을 살피는 일도 자신이 져야할 책임입니다. 덮어놓고 분개한다든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든지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고치겠다는 사고방식도 버려야 합니다. 미래에 받을 축복이 뒷받침이 될 기록에 차질이 생겨 위태롭다고 하면 저는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제 자신과 가족의 기록이 합당하게 기록된채로 보관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 마음의 위안을 얻겠습니다.

1967년 10월 4 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69년 8월 1일
(통권 제 49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T. S. D.)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 가 : 50원
1년 구독료(우송료 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표지 설명 : 8월은 성하의 달이다. 나무는 가장 무거운 잎을 달고 있을 계절이다. 더워서 방심하기 쉬운 때 무시처럼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을 여미는 계절이어야겠다. 노아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일러준 분이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들어 우리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한 인일뿐더러 옳은 것을 굳굳히 실천하였던 분이므로써 우리의 추앙을 받을 만 하기에 표지로 실어 보았다. “홍수를 경고하는 노아”란 제목의 이 그림은 헨리 앤더슨이 그린 최근의 작품이다.

제 5 권 제 8 호

순 서

1969년 8 월호

| | |
|---|-----|
| 권두언 : 침례의 문 데이비드 오. 맥케이..... | 1 |
| 개인의 평가 로저 윈칩 스투워드..... | 3 |
| 성인과 배움길 해롤드 클렌 클라크..... | 7 |
| 관리 감독단 페이지 : 십일조 존 에이치. 반덴버그..... | 10 |
|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영국 선교부 앙드레 케이. 아나스타송 1세..... | 12 |
| 어린이 성도의 벗 : 그림놀이 로버타 엘. 페어럴..... | 15 |
| 말일의 사도..... | 16 |
| 공이란? 쉐랜 에스. 데이비스..... | 18 |
| 상호 부조회 : 어머니의 타성 플로렌스 피녹..... | 19 |
| 주일학교 : 공과 계획 렉스 디. 파인저..... | 20 |
| 상을 얻게 되는 건강의 규칙 윌리스 디. 윈..... | 23 |
| 상호 향상회 : 상호회와 친교..... | 25 |
| 청소년편 : 무엇을 행해야 할 권능인가?..... | 26 |
| 인간의 악한 계략 존 에이치. 반덴버그..... | 27 |
| 선교부장 멧세지 : 하늘 문 서 현보..... | 29 |
| 지방부장 멧세지 : 비판받지 않으려면 차 종환..... | 30 |
| 내외소식..... | 31 |
| 진리의 말씀 :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교훈 리차드 엘. 이반스..... | 뒷표지 |



침례의 문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침례를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 하셨습니다.

“침례란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성입하여 주신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죄의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제외한 방법은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사람에게 성신의 은사는 주어지는 것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98페이지)

침례는 복음의 첫째가는 원리이며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침례를 분명히 교회의 의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분석하여 본다면 신앙이나 회개를 원리로 간주한다는 의미에서 침례를 원리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성스러운 분의 능력으로 세워진 율법이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침례란 영적인 성장의 기본 원리가 된다는 의미를 내

예수는 “모든 의를 행하기 위하여” 요한의 손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포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요소를 든다면 덕이 충만한 고상한 가정의 어머니인 진실성과 인간이 일체의 현세적인 특성을 떨어버리고 창공을 날 두 날개인 단순성 및 순수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성스러운 의식중에 위에 말씀드린 세가지 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과 후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욕을 보여야 합니다. 봉사에 이기적인 목적이 간여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율타리 안에 들어가 그의 백성으로 헤아림을 받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여 주겠다는 정신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임할 때 비로소 참다운 회개의 원리가 합당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구세주께서는 “마음이 청결한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침례를 수백번 받는다 하여도 불순한 마음으로는 그 분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단순성은 사람이 의도하는 바에서 잘 나타납니다.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는 허례, 뽐냄, 자신의 명예나 세상에서나 인정하여 주는 대우를 받겠다는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좇아 살겠다면 단순한 소망은 합당한 의도를 가졌을 때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단순성이라고 하는 덕이 오로지 의도에 국한하여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는 의식의 집행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성스러운 기록에 나타난 침례를 보아도 이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보면 요단강에서의 주님의 침례를 보거나 빌립이 간다게 여왕의 종에게 준 침례, 바울과 실루아노가 간수에게 베푼 침례,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베푼 침례, 엘마가 헬람과 다른 사람에게 베푼 침례를 보면 잘 알게 됩니다. 이러한 예의 공통적인 특징은 단순하면서도 성스러움을 지닌 의식이었다고 하겠습니까. 상당한 기간을 두어 준비를 한 것도 아니며 굉장한 의식을 베풀어 불경한 의식을 가졌다는 증거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죄를 뉘우치는 회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어울리고 싶다는 강한 의욕이 필요한 사항이었을 뿐입

니다.

예수는 “모든 의를 행하기 위하여” 요한의 손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 3:15)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 하였습니다. (눅 7:30)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 3:5)

베드로는 교회 회원을 향하여,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갈 3:26-27) 또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지원하는 표”라고 강조 하십니다. (벧전 3:21)

이상의 세 구절에서 우리는 침례라는 의식이 갖는 목적 3가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1) 하나님 스스로가 세우신 의식으로 영원한 의의 원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우리는 율법에 좇아 살아야 합니다.

(2) 췌초의 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율타리로 이어지는 입구라고 하겠습니까.

(3) 약점과 불결 투성으로 점철된 옛날의 자신을 매장하여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아름답고 숭고한 상징입니다.

침례 의식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진실하고 순결하며 단순하게 이 의식에 따를진대 의식을 바꾸어 율법을 범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맛볼 수도 없는 성스러운 안내자이신 보혜사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 하찮게 알고 과소평가하며 이의 능력을 의심한다 하여도 간단한 형식으로서의 침례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상징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구원에 꼭 필요한 율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지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12)

○

개인의 평가



●엘리베이터의 문은 부드럽고 조용히 열렸다. 뚝 부딪치는 한 손을 들어 빨간 머리 카락을 뒤로 쓸어넘기면서 심호흡을 하였다. 그리고는 8층의 긴 복도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대학 졸업반인 그는 레이필드 회사 이중문 밖에 발을 멈추었다. 단정한 회색빛 옷저고리의 단추를 채웠다. 그리고는 조금 전과 똑같은 일종의 긴장감을 억누르며 뚝은 중역실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달랐다. 넓직한 응접실로 뚝비던 지원자가 없다는 점 이외에도 무척 달랐다. 시야에 들어온 사람은 친구인 레리 글로슨이었다. 레리의 어두운 두 눈은 뚝에게 쏠렸다. “어이, 뚝”

“잘 있었나? 중요한 날이로구나.”

레리는 한 숨을 쉬었다.

“마지막 면접인 모양인데 잘 해봐.”

뚝은 레리에게 다가가 힘있게 팔을 내밀었다.

“너두 마찬가지로 잘 해봐.”

예의 그 예쁜 금발의 비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지난 번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은 사장님이 바쁘셔서 5분밖에는 시간을 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농담이십니까?” 레리가 말을 받았다.

“5분이라구요?” 뚝은 숨을 몰아쉬었다. “한 사람을 5분동안 만나시겠다는 뜻인가요?”

비서는 미소를 그치지 않았다. “오늘 아침은 약속으로 꽉 차 있으셔서요.”

레리는 턱을 흠뻑했다. “그렇지만 뭔가 잘못된 거겠죠. 마지막 면접인데 5분이라뇨.”

“네, 잘 아시는군요. 브릿지씨, 가서 앉으시죠. 사장님이 잠깐 보실테니까요. 시간두 그렇구 하나까 한 5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어이 없다는듯이 마주 쳐다보는 두 대학생은 남겨두고 마쉬양은 바삐 안으로 들어갔다.

뚝은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뚝은 생각에 잠겼다. 전자 조작중 아직 꿈도 못꾸는 분야를 개척 거의 완전한 상품을 생산하여 번창일로에 있는 레이필드 전자계산기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일까? 그것 참! 만일에……”

이 때 레리가 말을 던졌다. “도대체가 5분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알아본다는 거지?”

뚝은 머리를 가로 저었다. “글쎄 뭐 대단한 것같지 않은데.”

“이럴 정도라면 뭐하러 오라구는 그러지?”

“나두 그말이야. 그렇게 바쁘면 소위 이 마지막 접견을 없애버리면 그만 아냐?”

레리는 입을 열었으나 재빨리 다물어버렸다. 마쉬양이 미소를 머금고 다시 나타났던 것이다.

“사장님이 보시겠다고요.” 뚝을 쳐다본 그녀는 “브릿지씨가 먼저 들어가시죠.” 하였다.

50세의 거구는 40세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 우락부락한 실업가는 정력과 확신을 발산하고 있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더구나 의아한 점은 무슨 접견이 대답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전용 사무실 문이 열리자 사장은 손을 내밀며 뚝을 맞아 주었다. “잘 있었나? 반갑네.” 손에는 힘이 넘쳐 흘렀다.

“이리 앉지.”

그리고는 자기도 놀라울만치 빠른 속도로 큰 책상 뒤에 놓인 가죽 의자에 깊숙히 앉았다. 그의 태도에는 신다든지 긴장이 풀렸다는 인상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똑바로 앉아 뚝을 바라보는 예리한 두 눈은 마치 꿰뚫기라도 할 것 같았다. “자네하구 글로슨, 요새 아주 혼나지?” 뚝은 어색하게 웃었다. 간부 사원 훈련 요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모인지원자가 49명이나 되었지. 물론 처음 20명을 떨어뜨리는데는 어려운 점이 없었던 모양인데……여하간 자네와 글로슨이 어려운 시험 면접과 기타 필요한 조사를 마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 보며 레이필드씨는 계속하여 말을 이었다. “이제 자네 두 사람으로 좁혀졌단 말이야. 최종 결정을 내릴단계에 이르렀지. 우선 내가 자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좀 힘아들걸……”

뚝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았다.

“잠깐 동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네. 만일에 우리가 자네를 고용하는 경우 우리 사가 어떤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정도는 알아 두어야 하지 않겠나?”

뚝은 고개를 끄덕였다. 실업가는 일어나 방안을 걸기 시작했다.

“우리가 새로운 세대에, 소위 혁명적인 시기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 그는 방안을 거닐면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시대가 변하고 모든 방법이 급속도로 개선되어 가고 있지. 예를 들어 지원자의 종류를 전자 계산기로 가려 낸다는 소릴 들으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겠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한 4.5 미터 떨어진 곳에서 레이필드씨는 엄숙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모든 게 변한 것은 아니지. 기본 가치는 그대로 남아 있지. 오늘날 사업상의 음모라든가 배신, 산업 비밀탐지 등이루 말할 수 없는 면에 관하여는 귀가 아프게 듣고 있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도 결국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바로 이 사실이지. “대단한 분이로구나” 뚝은 생각하고 있었다.

시간이나 보내기 위하여 부른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구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걸.

졸업반 학생은 큰 소리로 말을 시작하였다. “저는 사장님보다 더 냉소적인 실업가와 이야기할 기회를 여러번 가졌었습니다.”

“냉소적이라구?” 레이필드씨의 눈에서는 빛을 발했다.

“물론 보아왔겠지. 나도 마찬가지로야.”

그는 그 건물에
머리 숫이 많은
반백의 교수를 그려보며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 말은 빨라지기 시작하였다. “여하간에 나는 옛날에만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충성이라든가 신뢰라는 걸 아직도 믿고 있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해. 이 세상에는 우리가 노력만 하면 찾을 수 있는 고결이라는 게 있어. 또 이는 사업의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찾지 않으면 안되지.”

봄은 주의깊게 듣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오분을 다 쓰는 게로구나.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하려구 그러지?” 라는 불안이 떠나지 않았다.

“정직은 대가를 치른다.’ 라는 금언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없어진것은 아니지. 자네 생각으로는 왜 우리사에서 이렇게 믿을만한 사람을 찾는다고 믿는가? 한 마디로 필요하기 때문이지. 모든 사람은 새로운 방법에 곧 친숙해 질 수 있지.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개성은 전혀 다른 문제지.”

시계를 쳐다 보면서 사장은 자리에 다시 앉았다. 그러더니 벼란잔 화제를 바꾸었다.

“지원서나 시험을 통하여 자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많이 알게 되었네. 우리 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가깝더군. 그런데 글로슨도 그런 점에서는 자네와 같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색다른 방법으로 경쟁을 해보아야 하겠어. 즉 글로슨에 관하여 생각하는 바를 알려달라는 것이지.”

“글로슨에 관한 평가를요?”

“그래. 좋은 점을 쓰라는 것이 아니야. 예를 들면 자네 친구가 왜 우리사의 간부 사원이 될 수 없는가를 적으란 말이야.”

봄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사장을 응시하였다. “잠간,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일이지. 그러나 이런 제의를 자네한테만 하는 건 아니야. 조금 있으면 글로슨도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되지.”

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사장은 손을 울리며 계속하였다. “내가 알기로는 둘이 오랜 친구인데, 그렇다면 서로 상대방의 약점이나 결점을 잘 알것 아닌가? 그걸 알려 달라는 것뿐이야 이야기한 대로 그 사람을 처리하겠다는게 아니구 이런 시험을 통하여 자네가 다른 사람의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나를 알게 될 것 아닌가.”

봄의 미간은 깊어졌다. “질문 한 가지 드려도 좋겠습니까?”

“कु췌 곤란한데, 시간이 없는걸.” 사장은 일어섰다. “네 다른 방을 안내해 주지. 15분 동안 여유를 주지. 그 안에 다 써두네가 사람을 보낼 때까지 기다려 주기 바라네”

봄은 얼마 동안 안내된 방을 이리 저리 서성거리며 그대로 보냈다. 이런 방법으로 유능한 사원을 뽑는 것이다. 봄은 이것이 못마땅하였다. 사장이 조금 전에 언급한 옛

날의 충성이라든가 고결성은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하였는가? 그렇게만 생각되었다.

창문 앞에 선 그의 눈에는 먼 시가에 싸여있는 대학 건물이 들어왔다. 대학 예배실의 높은 첨탑이 언덕에 걸려 있는 듯 보였다. 그 밑으로는 흰 색의 케논관이 평범하게 서 있었다. 울창한 숲사이로 경영대학 건물이 보였다.

보보는 더욱 얼굴을 찡그렸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 그만 돕시다.” 하며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겠으니 그 곳에서 쓰도록 하시오. 시간은 15분간이오. 시간 전에 마쳤다 하여도 내가 사람을 보내기 전에는 자리를 떠서는 안되오.”

안내된 작은 방에 들어선 봄은 일 이분 동안은 마루를 광광 구르고 무어라 중얼거리면서 방을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며 보냈다. 이 과정은 바로 그 회사가 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선발” 과정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이었다. 그는 이같은 방법을 좋아하지 않았다. 티. 제이. 레이필드의 밝은 충성과 성실에 대한 이야기가 방금 끝나지 않았던가

창가에 잠시 선 그는 많은 집 너머로 대학 건물들을 멀리 볼 수 있었다. 동창회 예배당 첨탑이 대학이 들어선 언덕을 훌륭히 장식하고 있었고 그 밑에는 흰 기둥이 있는 현관의 케논관이 환히 보였다. 숲에서 모퉁이를 조금 내밀어 보이는 곳이 바로 경영 대학이다.

경영학이라 함은 바로 델비 교수를 의미하게 된다. 봄은 그 건물에 머리 숫이 많은 반백의 교수를 그려보며 바라보고 있었다. 이 노련한 교수는 교수진의 어느 분 보다도 훌륭하였다. 고고한 채 하지도 않았고 바쁘다고 학생들의 고통을 회피하는 일도 없이 들어주었으며 학구적인 문제이건 개인적인 문제이건 간에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여 왔던 것이다. 그는 학생들의 상담자요 안내자며 친구였다.

“교수님에게 말씀드려 보아야 겠다. 그렇다고 교수님이 레이필드씨에 가지고 있던 감정이 바뀔 것인가.”

바로 이 델비 교수가 봄과 레리에게 서로 경쟁하여 입사 시험을 치르도록 처음 주선했던 사람이었다. 추천인의 명단에 그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기록해 두었을 뿐 아니라 레이필드 회사의 입사 시험은 졸업후 극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들을 전적으로 격려했던 사람도 바로 이 교수였다.

그는 이것을 “일생의 호기”라고 일컬었었다. 아마도 델비 교수보다 이 두 청년의 발전 과정을 깊은 관심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양편을 어느 것이나 싫어 하지도 않았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직 “델비의 제자” 중 어느 한 사람은 탈락하게 되리라는 것 뿐이다.

한숨을 내쉬는 봄은 창을 떠나 책상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종이 몇 장과 뾰족하게 깎은 노란 연필 두 자루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창상에 앉은 그는 연필을 놓아 둔 채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어 종이에 아무렇게나 낙서를 하였다.

이 단계에서 탈락한다면 곤란한 일이지 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전에는 얼마나 합격하기를 바랐던가를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그러나 가장 친한 친구를 잃게 된다고 생각하니 슬펐다.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가! 그도 나를 견제하지 않으면 이 회사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마음아퍼할 것인가!

봄은 낙서로 찬 종이를 발침에서 빼어 구겨서는 휴지통에 던져 넣고 자리를 잡아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예쁜 금발의 비서는 이번에도 미소를 지은 표정으로 돌아와 봄이 기록한 평가서를 받아들고 다시 그를 레이필드 씨의 넓직한 사무실로 안내하였다.

거의 이와 때를 같이하여 레리 글로슨도 그 방으로 들어 왔다. 두 청년은 서로 입을 베지는 않았으나 잠시 시선이 마주쳤다. 레리는 방으로 들어와 자기의 경쟁자가 앉아 있는 긴 가죽 의자에 같이 앉았다.

그동안 서류가 가득 쌓인 책상에 앉아있던 레이필드 씨는 그들이 쓴 글을 꼼꼼히 읽고 있었다. 봄은 왜 그가 두 사람을 한 곳에 불러 놓고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합격한 사람을 말해 주고 나머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지 않는지 원망스러웠다.

얼마 후 사장은 입을 열어 “이 두 글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짧은 글입니다.” 고 말했다.

봄은 불안하여 몸을 바로하여 앉고는 방금 자신이 기록한 글 읽는 소리에 귀 끝까지 붉히면서 듣고 있었다.

“나는 나와 함께 티. 제이. 레이필드 회사에 신입 사원으로 응모한 레리 글로슨에 대하여 “부정적인 찬사”를 하라는 과제를 받았다.

“만일 그제가 레리의 좋은 특성을 기록하라는 것이었다면 나는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오랜 동안의 친교를 통하여 나는 그를 잘 알 수 있었고 그의 많은 미덕과 재능을 아끼게 되었고 그의 인격에 대하여는 존경까지 하게 되었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같은 직장을 서로 쟁취하게 되었지만 레리와 나는 우연한 친구가 아닌 것이다. 그의 친구로서 나는 레리의 “부의 자질”을 감히 열거하기 조차 두려워 하는 것이다.

“나는 내게 부과된 과제를 바르게 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사시험에서 스스로를 탈락시키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으

로 보며 이에 대하여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는 있으나 입사시험에서의 합격은 곧 친구의 명예를 손상시킴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합격될 경우 더욱 유감스럽게 느끼게 될 것이다.”

글을 쓴 종이를 책상에 던지며 레이필드 씨는 담담하게 “바로 이거요. 로버트 부릿지는 우수하게 채용됨” 이라고 서명했습니다”고 말했다.

침묵이 사무실에 흘렀다. 기업가는 다른 글을 읽으려 종이를 잡았다 “이제는 이것을 들어 봅시다. 이 글의 특기할 만한 사항도...아마 두 분이 들으시면 자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다시 소리를 내어 읽었다. 레리 글로슨이 작문한 내용의 “특기할만한 것”이란 글 서두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어휘가 조금 다르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보브의 글을 실제로 복사한 것과 같았다.

두 사람은 모두 부과된 과제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내놓은 이유도 같았으니, 두 사람은 모두 부과된 상대방에 대하여 “정적인 자질”을 열거하지 못하는 결과는 입사 지원자로서 실패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이 완전히 격리되어 이 글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필시 두 사람이 함께 이 글을 작성하였으리라고 믿게 될 줄 압니다.” 고 말하는 레이필드 씨는 열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계속하여 “한 가지 면에서 두 사람은 모두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 친구를 “헐뜯는” 것이 입사경쟁에서 탈락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나는 직장 생활에 관한 한 친구로부터 조금이라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충실하다는 말을 듣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깊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고 진지한 태도로 말하였다.

잠시 심각한 태도를 지으며 침묵을 지키더니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 친구를 팔아 직장 얻기를 거절했다는 바로 그 사실은 이 직장이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중견 경영자로 필요로 한다는 내 신념을 확고히 한 것입니다.” 하며 말을 맺었다.

앞으로 최고 경영자가 될 사람들이 그 곳을 떠나려고 할 때 레이필드 씨는 “당신들이 델비 교수께서 언제나 인용하시는 친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제노가 받았을 때 “또 하나의 자신”이라고 대답하였다”는 인용으로 결론을 맺으며 글을 마쳤다고 하여도 그것은 나를 놀라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고 말하였다.

봄과 레리는 놀라움으로 마주 쳐다본 후 봄은 “선생님께서 그 교수님을 알고 계신 줄을 저희는 미처 몰랐습니다”고 말하였다.

중년에 접어든 기업가는 웃으며 “그러나 옛날에는 나도 델비 교수의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성인과 배움길

해롤드 글랜 클라크

● 금년에도 전세계에 걸쳐 수 백만의 성인들은 여러 종류의 배움의 경험을 얻기 위하여 다시 학교로 돌아 가게 될 것이다.

학교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은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중 많은 사람들은 무지의 전선에 들어가 투쟁하여 생활의 사막에 “장미와 같이 꽃 피게 하려는” 고상한 열망에 자극되어 배우고 있는 것이다. 개중에는 자신의 앞길에 놓인 지식의 경지에 대한 순수한 추구의 욕망에 자극 받은 호기심에 끌려 배우는 이도 없지 않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사항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니 첫째 모든 사람은 수시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이를 발산하여야 하며 해결해야 할 일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며, 둘째 각 사람은 자발적으로 학습을 다시 받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배움의 모험에 성인 특유의 경험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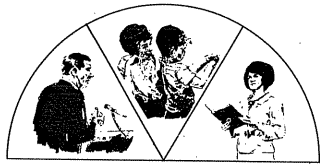
그들은 기대되는 학도이기는 하나 자신이 받는 교육이 졸업과 더불어 끝나는 교육이 되지 않는 바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학점을 얻어야만 하는 융통성이 없는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던 것을 찾아내고 배우며 과정을 따라 교육을 받아 가는 것에 대단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부분적인 이유기는 하나 지식의 무서운 폭발상태를 보고 온 생애를 배움에 바쳐보겠다는 비상한 열망을 갖는 경우도 있다. 과학적인 지식은 오늘날 어찌나 빈번하여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는지 그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도 받았다고 말하기조차 힘든 지경에 있는 것이다. 최선의 이론이었던 것이 채 교과서로 출판되기도 전에 폐기되기도 하며 계획이 설계실에 채 들어가기도 전에 낡은 것으로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은 하이만 지. 릭오버 제독으로 하여금 “현대문명에서 새로운 경지라는 것은 이제 오직 인간의 상상속에만 존재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과거에 자신이 자연을 정복하던 것과 같이 지식을 정복해야 할 것이다.”고 까지 말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이 성인 말일성도에게 뜻하는 바는 무엇이었는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은 예언자이며 지도자였던 요셉 스미스께서 모범을 보인 탐험하고 발견하며 모험하는 태도라는 위대한 유산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주께서는 예언자와 그를 따르던 무리에게 교회의 초창기에 “서로 하늘 나라의 교리를 가르치라”고 이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회원이 배우는 일에 솔선하



여 배워 “서로 가르치기”를 기대하셨든 것이다. 이 젊은 예언자가 주님으로부터 교회 회원들이 열심히 서로 가르치다던 당신의 은혜가 임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틀림없이 기뻐 흥분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기도와 금식의 영으로 가르쳐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는 모든 것”이었다. 지리, 역사, 역사, 음악, 언어, 인류, 문화 및 “국민간의 갈등”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는 지식인 것이다. (교리와 성약 88 : 77-80)

예언자의 학교와 그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성도들은 신앙 및 가장 훌륭한 책을 공부하므로서 지혜를 얻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종전에는 언어의 나열에 불과하였던 사항에 위대한 개념과 이상을 부여하기 때문에 배움에 있어 대단한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생명과 빛의 근원이 되며 언어, 감정, 사랑과 사물에 생기와 빛을 주는 이상을 발견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모험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이들 이상이 빛과 진리라면 그것은 즉 예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다. 따라서 요셉 스미스의 참된 배움은 위대한 모험이요 온 생애에 걸쳐 열의로 추구하여야 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하여 놀라울 것이 없는 것이다.

교회 회원이 배워 처음 얻게 되는 놀라운 경험의 하나는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지식이다. 이것은 일생동안 자신의 이상을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적응의 모험길을 열어 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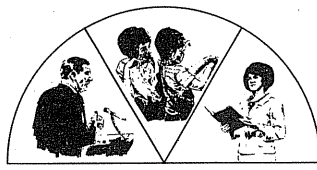
우리가 읽어야 할 최선의 책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세상에는 과오와 참됨이 함께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질책의 대상이 되는 것이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지식은 각각 무엇이며 어디서 찾을 수 있고 또 어느 것이겠는가? “늘 공부하나 참된 진리와 지식은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장관은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사물의 가치판단에 있어 오류의 추측이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에 대한 추구인 것이다. 종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던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 사람의 기쁨과 흥분은 대단한 것이다. 이 위대한 진리로 그는 생활의 지표를 삼을 수 있게 되므로 이 진리를 고이 간직하게 마련이다. 그는 이제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야기한 “우리가 생애 동안 접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변화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호감을 주는 진리와 그렇지 못한 진리에 기인하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더욱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배움을 자

신의 생애에서의 위대한 이상과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결정하여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이 많은 선과 악 중에서 선한 것을 택하는 바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각 사람이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임의 사항이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인간의 창조주와 그 주위의 여건으로 이미 상정(想定)된 위험으로 존재하여 온 것이다. 그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배우는 자가 시험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배운다는 큰 모험을 겪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인격을 쌓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큰 배움의 모험은 요셉 스미스에게 권고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리라” (교리와 성약 130 : 18)는 교리로서도 잘 나타나 있다. 참된 배움이라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주께서는 큰 성실성과 복종으로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은 사람은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그만한 특권을 받게 되리라는 가르침을 덧붙여 주셨다. 다른 말로하면 어느 사람이 지식의 근본 원리를 터득하여 자신의 생활에 이를 적용할 만치 지식을 갖추게 된다면 그는 오는 세상에서 지식과 예지를 얻지 못한 사람보다 행복, 즐거움 및 인재로서의 유용성에 있어 대단히 좋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예언자는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131 : 6)고 하였다. 가장 큰 무지라 함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도 진실함이 변치않는 구원의 원리에 대한 무지인 것이다. 일단 우리가 얻은 예지의 원리는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며 배움을 받은 사람이 자유, 신앙, 침례, 복종, 희생, 의무, 권능, 인내, 결혼, 성약, 그리스도의 속죄, 용서, 창조, 사랑, 및 하나님의 개념을 알고 이를 실천에 옮기게 된다면 그는 이러한 영원의 원리로서 장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영원의 원리가 적용되는 주위 환경은 변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 원리 자체는 숨겨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물을 언제나 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것이며 언제나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응, 재 활용, 복합, 재정비를 부르짖고 있어 스스로를 영원히 하며 그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언제나 새롭고 흥미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으며 아버지께서 예비하셔서 당신을 충분히 배워 알고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말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원리를 배우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음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원리는 늘 변천되고 있는 환경에 영원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 작가는 “바른 궤도에 올라 있는 것만으로서의 충분하지 못하다. 그 곳에 앉아 있기만 한다면 낙사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원리가 발전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되어야 한다면 배움의 모험이란 결코 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한구절 한구절 씹, 그리고 이곳 저곳에서 조금씩 배우게 듣는 것이다. 만일 모든 말일성도가 영원히 지식을 지혜와 성장된 이해력으로 돌리는 위대한 모험에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면 지적으로 낙후하는 성도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겸손하고 충실한 말일성도인, 배우는 자가 가장 깊이 공감하게 되는 경험이 있다면 이는 자신의 배움 능력에 그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실인 것이다. 실로 만일 말일성도가 자신의 연구력과 관찰력에만 의존하였다면 자신이 결코 알 수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와 같은 능력에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첨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신앙이란 배움의 한 형태이다. 유능한 교사이며 신회의 일원인 성령에 의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하는 이 신앙의 방법은 주께서 몸소 보여 주신 길인 것이다. 모로나이는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 (모로나이사 10 : 5) 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성령의 가르침은 신앙과 선행과 권능 가진 자의 안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다. 성령은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언제나 반려가 될 수 있다. 배우는 사람이 성령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심중의 겸허를 통하여 성령으로부터 지도를 얻게 되는 것이다.

성령을 통하므로서 배우는 사람은 자신이 노력할 바위치와 배우는 과정에서의 성경의 자리를 알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배우는 과정의 모든 모험중 가장 큰 것이며 또한 배우려는 자극을 가장 강하게 주는 것이기도 하다. 성령을 통하므로서 말일성도인 배우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직 과학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넘어 볼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지상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학술적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점차 사람들이 자신에 관하여 생각하게 되는 현대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를 이야기하여 주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미 3세기의

사람들이 아니므로 승영의 의미도 바꾸어 알아야 하는 것이니 즉 이는 그 의의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일과 더불어 신앙의 필수적이며 중추적인 사항에 대하여 과학은 필연적으로 침묵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과학의 침묵은 겸손의 침묵인 것이지 경멸의 그것은 아니다. 믿음은 사실보다 클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과장된 신앙은 거의 대부분 생애의 중대한 순간에 적절하지 못함이 입증되는 것이다. …… 다음 세대에 대한 깊은 사고를 명백히 정립하고자 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는 과학을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과학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영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공부하는 사람은 실제 적용할 수 없는것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만은 안된다.” (1965년 포춘 지, “과학의 휴식” 배네버 부슈 박사)

성령은 배우는 데 있어서의 모험의 방향, 목적과 균형을 주는 것이다. 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널리 세계에 걸쳐 교육되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소위 인생의 진리라는 것을 무의미하게 하고 자유 정신을 저해 시키고 있는 것이다. 토론과 추정은 이들이 가장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수단이지만 배우는 사람들은 “분석 무능”의 고통을 수시로 당하게 된다. 교과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교육되고 있는 내용의 많은 부분은 한결같이 불확실하며 모호한 결론에 이르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결론이 마치 배움의 위대한 모험에서 바람직한 연구 태도인 것과 같이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미약한 햇불이 채 비치지 못하는 지식의 범주를 초월하여 확인해 주며, 밝혀 주고, 이해시키는 교사로서의 성령의 힘은 대단한 보상을 주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인간이 노력하므로서 배움의 위대한 모험에서 학자, 정치가, 시인 그리고 예언자가 얻게 되는 지식이란 대단한 것이다.

주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성령으로 “창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시되지 않은 지식을 배우는 참된 배우는 자를 교회에 내리겠다고 약속하셨다. 계속하여 주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 수로를 따라 흐르는 미조리 강의 흐름을 막아 이를 되돌려 보낼 수 있으랴. 만일 그같이 할 수 있을진대 전능하신 이께서 말일성도의 머리 위에 하늘에서 지식을 쏟아 부으심을 막을 수 있으리라” (교리와 성약 21 : 26, 38) 고 말씀하셨다.

진실로 배우고자 하는 말일성도에게는 웅장한 배움의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에게 주는

관리감독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
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
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
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
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하니하나 보라”

(말라기 3:8-10)

십 일 조

●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다 여로와의 것이로다. (시편 24:1)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과 소유하기를 바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것이다. 물론경에 보면 베냐민왕은 다음과 같은 훌륭한 가르침을 주었다. “이는 보라, 우리가 모두 결식하는 자가 아니뇨?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가진 모든것 곧 우리의 음식과 의복과 금, 은, 그밖의 온갖 재물로 인하여 같은 분이신 하나님께 기대는 자가 아니뇨?” (모4:19) 지구를 잠시 빌려있는 우리에게 주께서는 1/10을 이자로 내도록 이르셨으니 이것이 바로 십일조인 것이다.

십일조는 고대의 율법이다. 우리는 살렘의 왕 멜기세덱에게 찾아간 아브라함에게 관하여 읽을 수 있다. “그가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창세기 14:19-20)

야곱은 하란에 있는 모친의 가족 중에서 아내를 취하기

위해 집을 떠나 여행하던 중 밤을 만나 저녁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였다.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를 편안히 아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쁨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받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8 : 20-22)

말라기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축복의 약속을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을 찾아 볼 수 있다.

“사람이 어찌하여 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 : 8-10)

고대에서와 같이 주께서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십일조의 법을 주셨다. 요셉 에푸. 스미스 대관장의 말씀을 들어 보자. “십일조의 율법은 각 개인이 합당한지를 시험하는 한 수단인 것이다.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시온의 발전에 무관심한 사람이고, 교회의 회원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게을리하는 사람이며, 지상에서의 하나님 왕국의 발전을 위해 전혀 공헌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만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도 공헌하지 않는 것이고 복음의 축복과 의식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부름받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인 것이다.” (복음 원리 226페이지)

십일조의 법은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이 율법은 교회의 회원에게 이기심을 극복하고 복종을 배우며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는 실질적인 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며 교회에 대하여는 자신의 충실성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다. 십일조의 원리는 실로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진실할 수 없으니 이는 현실적인 인간으로서 우리가 대단히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재화를 자발적으로 헌납하는 신앙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십일조의 법은 젊은 남녀가 생의 기쁨을 맛보려면 배워야 할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다.

십일조는 교회의 예언자인 대관장의 영감에 따라 교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예배당 건축비의 일부는 십일

조에서 나가게 된다. 십일조는 교회, 학교, 신전, 세미나리(Seminaries)에 대한 운영 지원에도 쓰이며 궁핍한 자를 돕고 선교사업을 확장시키는 데에도 사용되는 것이다.

모든 교회의 회원은 매년 한 번씩 감독과 만나서 자신이 헌금한 십일조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때 그는 자기가 온전한 십일조를 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가 여러가지 율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축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십일조를 충실하며 정직하게 내는 사람에게도 주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있을 때 한 과부가 사르밧 성문 앞에서 나무 가지를 줌고 있었다. 바로 이때 성문으로 들어가던 예언자 엘리야는 그 과부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 오라.”

이렇게 부탁을 받은 과부는 아마 놀랐을 것이다. 그리하여 설명하기를 “떡은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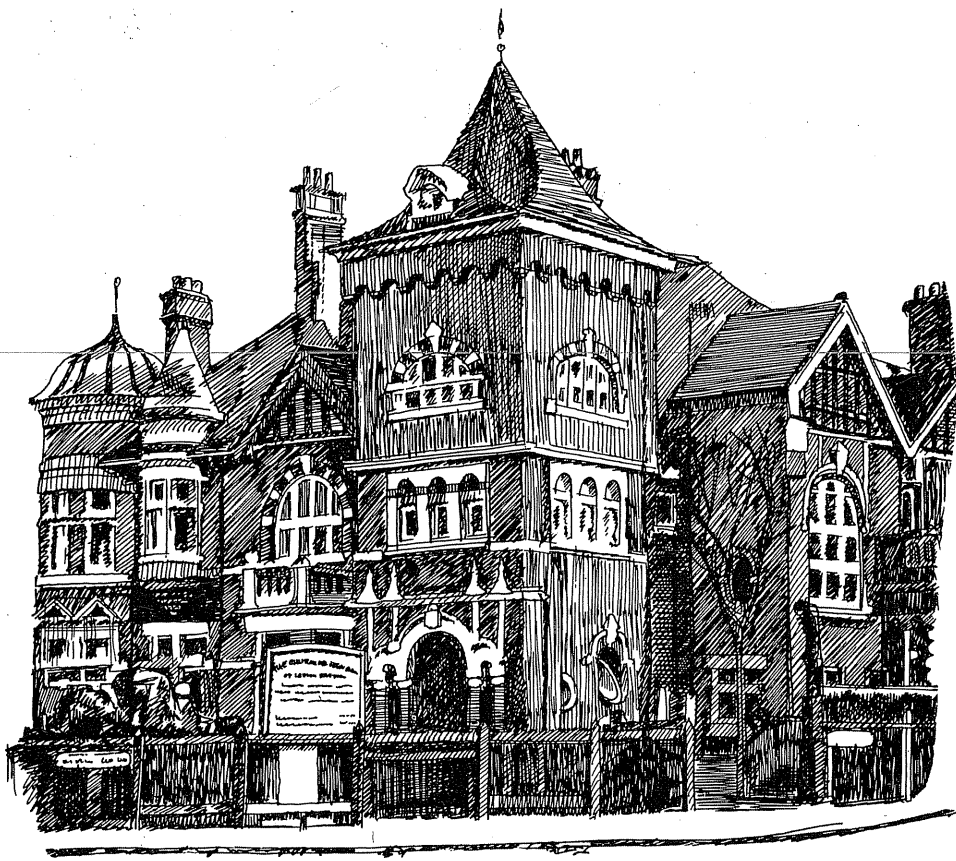
이에 엘리야는 과부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먹는다면 축복을 얻으리라고 말하였으며 과부도 엘리야가 이른 대로 행하여 축복을 받았던 것이다. 우리는 이로부터 과부가 주님을 사랑하였다는 것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소비하여야 했던 예언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본분으로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에 처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주님의 예언자에게 주겠는가? 이 여인은 그렇게 하였고 주께서도 복종에 대한 축복을 주셨던 것이다. 이 때로부터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는 결코 다하지 아니하였으니 “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열왕기 상 17 : 8-16)

1831년 9월 11일 미국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로 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인자가 올 때까지는 오늘이라 부르리니, 진실로 지금은 희생의 날이요,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날이라. 십일조를 바치는 자는 인자가 올 때 불에 타지 아니하리라.” (교리와 성약 64 : 23)

젊은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의 영적 시험인 십일조를 내는데 대한 우리 의무의 윤곽을 그린 교리와 성약 119편을 누구나 읽고 연구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



제 2 차 세계 대전 중의 영국 선교부

앙드레 케이. 아나스타송 1 세

● 1937년 7월 영국 랑가셔의 로치세일에서 있었던 영국 선교부 중앙 지방대회에 다른 교회 역원과 함께 참석한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시온에서 영국에 온 모든 선교사는 귀국하게 될 것입니다.” 고 예언적인 선언을 하였다.

1939년 9월 3일 대영제국은 나치 독일에 대하여 선전 포고를 하였다. 영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합동 훈령으로 직접 전쟁에 관련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미국인은 영국을 떠나라는 지시가 내리게 되었고 이에는 미국 선교사도 그 대상이 되었다.

1939년 말이 되어서는 약 130명의 선교사가 영국을 떠나므로서, 영국 선교부가 세워지고 102년 만에 처음으로 시온에서 파견되어 전파하던 선교사가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랜트 대관장의 예언은 채 2년 반이 지나지 않아서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내 두 보좌인 제임즈 피. 힐과 제임즈 알. 커닝햄 그리고 나, 세 사람은 당시 휴 비. 브라운 선교부장으로 부터 자신이 영국 선교부를 떠나기에 앞서 영국 선교부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우리의 임명은 교회 대관장단으로부터 전신 확인을 얻은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온 시간을 영국 선교부에 헌신하였다.

우리들은 곧 제 2 차 세계 대전의 불꽃을 겪게 되었다. 공격의 주 목표였던 런던은 매일 밤낮으로 폭격을 당하였으며 재산과 인명의 피해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였으며 주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다.

우리 선교부의 문제는 대단히 많았다. 우리는 전국에 걸친 68개 지부에 선교사를 택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해 연말에 가서는 15세에서부터 75세까지 이르는 400명의 형제를 선교사로 부를 수 있었다. 이들은 한 주일에 평균 5시간씩을 지부를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으로 할애하였다. 우리 선교부에는 또한 12사람의 영국인 복음 선교사가 있었다. 둘씩 짝을 지어 이들은 각 지부에 4 주씩 지체하면서 일요일에는 설교와 복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하므로서 우리 선교부의 각 지부는 선교사를 대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 동안에도 복음 선교사에 대한 필요는 실로 대단히 컸었다. 글라스고우에서 열렸던 스코틀랜드 지방부 지방대회와 마지막 총회에서 선교사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때 나는 오른쪽에 노부부와 딸이 맨 앞줄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딸은 종이에 무엇인가 적어 부모에게 의사를 표하곤 하였다.

마지막 총회가 끝나자 이사벨라 맥도날드라는 이 숙녀가 내게 좀 멋적은 듯한 태도로 다가와서는 “선교부장님 제 부모들은 저가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에는 기꺼이 동의하여 주셨으나 경제력이 없어 걱정입니다”고 말하였다.

“맥도날드 자매님. 부모님께 가지거든 선교사로 가겠다는 자매님의 신앙과 부모님의 허락을 내가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자매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월요일 런던으로 돌아가니 화요일에 자매에게 편지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사무실로 와 책상에 앉으니 여러 통의 편지가 와 있었다.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편지가 하나 있었다.

“친애하는 선교부장님. 저는 6 개월 동안 선교사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에 우선 한 달치 송금액을 보내드립니다.” 이 편지는 당시 불란서의 모처에서 영국군 장교로 복무 중이던 형제가 보낸 것이다. 나는 즉시 맥도날드 자매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이 자매는 선교사 임무를 훌륭히 마칠 수 있었다.

여행 여권을 갖고 나는 영국 선교부에 속해 있던 아일랜드 지방부를 방문하였다. 내가 아침에 아일랜드의 도시 벨패스트에 이르니 이곳은 간 밤의 심한 폭격으로 아

직도 연기가 이곳 저곳에서 오르고 있었다. 주택가와 상가는 온통 황폐되었다. 이 한 주일 동안 나는 모든 회원을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다.

일요일에는 연차 지방대회를 벨패스트에서 가졌다. 우리가 일요일 오후에, 모인 곳은 노동 회관의 상층이었다. 이 대회에는 45명 밖에 되지 않았으나 두려운 공습이 지나가고 난 후의 성도간의 단결이란 과거 어느 때 보다는 대단한 것이었다. 복음 선교사의 필요성이 다시 우리를 억압하게 되었으며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른 편을 보니 타가트 자매가 성도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타가트 자매님. 나는 자매님에게 선교사로 봉사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으면 합니다. 자매님은 6 개월을 할애하여 주님께 대한 봉사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나요?”

자리에서 일어난 타가트 자매는 “선교부장님. 저는 기꺼이 나가고 싶은데 그간 사용할 돈이 없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을뿐 아니라 하나뿐인 남동생은 해군에 복무 중입니다. 동생이 돈을 보내 주기는 하지만 몇 푼 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와 저도 일을 해야 합니다.”

“다가트 자매님. 그렇게 대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자매가 선교사로 나가 봉사하는 동안 필요로 하는 돈을 자매가 소유할 수 있는 길을 틀림없이 마련해 주시리라 믿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꺼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후 나는 왼 편을 보았다. “배너타인 자매님, 잠시 선교사로 봉사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전쟁 동안 교회를 돕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기꺼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은 홀어머니 밑에 딸 다섯과 아들 하나가 있어 이 아들이 어머니와 우리를 부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매를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폐회찬송을 부르는 동안 내 심중에는 이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찬송과 폐회기도가 끝난 후 더블린 지부의 회원 한 사람이 내게 다가 오더니 “선교부장님 제가 타가트 자매를 6 개월 동안 돌볼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고 제의하였다. 이렇게 말한 자매가 수표를 끊고 있는데 그 테이블 옆에 다른 한 형제가 서 있더니 “저는 배너타인 자매가 선교사 임기를 마치는 동안 재정적 뒷받침을 해 드리겠습니다.”고 역시 같은 제의를 하여 왔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졌던 총회는 다른 방에서 있었는데 이 때에는 훨씬 많은 사람이 모여있었다. 폐회 후에 미국 군인 장교가 내게 다가 오더니 “선교부장님, 이렇게 주님의 영을 넘치도록 받아 본 일은 전에 없었습니다. 다른 선교사에게 재정적 보살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는 않겠습니까?”고 같은 제의를 해 왔다. 이 미국 군인 장교의 제의는 대단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으

며 다른 사람을 다시 선교사로 불렀다.

영국 선교부의 재정적 책임까지도 맡게된 나에게 전임자는 잔고가 약 200파운드(당시 250,000원상당) 정도 밖에 남겨주지 않았으며 수입도 많지않을 것으로 생각 되므로 대단히 주의하여 돈을 사용하라는 충고를 받았다. 각 지부에서 들어오는 십일조와 금식헌금 보고서를 보면 각 지부에서 요청하는 금액보다 적은 돈이 들어 오고 있으므로 나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 부담을 해결할 수 있을가에 고심하게 되었다. 지부단장에게 편지를 보내어 회원들로 하여금 십일조와 금식헌금의 율법에 좀더 충실히 하도록 하였으나 특기할 만한 효과가 없었으므로 절약을 할 수 있는 최대로 절약을 한다 하여도 당시의 잔고로서는 오래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마지 못하여 교회 본부에 경제적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내었으나 마음 한 구석에는 최후의 충고를 구하자는 면도 있었다. 지부를 몇 개 폐쇄한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싫었다.

“우리의 경제적 문제 해결의 방법이 일부 지부 폐쇄 말고도 다른 방법이 틀림없이 있겠지”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이 때 나는 주께서 가르치신 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다.

나는 점차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간구하게 되었다. 하루의 금식이 지난 어느날 나는 내 아내에게 심중에 생각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다음 날도 계속하여 금식하겠다고 말하였다. 대단히 근심스러운 태도로 나를 보던 내 아내는 “내일은 식사를 하시고 모래 금식하시는 것이 좋겠어요”하였다. 나는 아내의 충고를 따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격일로 금식을 계속하여 모두 35일 간이나 금식하게 되었다. 이것도 큰 겸손과 우리 선교부의 재정상태 해결을 위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욕망도 없이 오직 하나만 구한 것이다.

오랜 동안의 금식과 기도를 마친 후 나는 나의 보좌들에게 35일 동안 십일조나 금식헌금 등 돈에 관한 제시는 전혀 받지 못했노라고 말하였다. 내가 이 동안 느낀 것은 오직 성찬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느낌은 계속하여 마음 속에 간직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 신성한 회복된 복음의 의식 속에 재정적 문제의 해결 방안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가 연차 지방대회를 갖기에 앞서 일찍 성찬을 들고 간증 모임을 가졌는데 이 때에도 나는 같은 느낌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빵과 물을 축복하고 각 회원에게 전달한 후나는 우리가 성찬을 취하므로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되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떡과 물을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으며 그 대가로서 우리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며 그를 기억할 것과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에 나는 이곳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찬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약속을 현명하고 성실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인지를 물었다. 우

리는 이 질문의 답은 각자의 마음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그 곳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는 성경 말씀을 환기시켜 줌과 아울러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에는 언제나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태도와 마음상태를 음미하고 분석하여 언제나 우리가 맺은 성약 및 성스러운 의무에 진실할 수 있고 우리의 행위와 활동으로 주 앞에 현명한 신앙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렇게 하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후 나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였다. “여러분이 내는 십일조와 금식헌금은 주께서 다시 오셔서 시온에서 여러분이 상속으로 받게 될 때에는 백배로나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 이야기의 인상이 너무나 깊어서 였던지 그 후 회원 중에는 성찬을 취하지 않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그들은 성찬을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서 모두가 성찬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을 본 나의 기쁨은 여간 큰 것이 아니었다. 지부장에게는 아직도 성찬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묻지는 말되 계속 사랑과 친절을 보이도록하는 한편 자주 방문하도록 일러 두었다. 성찬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성찬 축복문이 모든 말일성도와 주님 사이의 개인적 증거와 성약이 되는 것이므로 성찬 축복문을 사전에 몇 번이고 되풀이 읽어 명확하고 경건하게 받음하도록 특별히 강조하였다.

부라운 선교부장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선교부장직을 재차 담당하는 데에는 거의 4년 반이 걸렸다. 이때까지 영국 선교부 산하에는 14 지방부에 74개의 지부가 신권 소유자들의 지도 아래 존재하게 되었다. 500명 이상의 시간 선교사가 전쟁 동안에 봉사한 외에도 105명의 복음 선교사가 훌륭한 봉사를 하였다. 이들 중에는 6개월 선교사로서의 임기를 갖고 봉사한 사람도 있었고, 일년 동안 봉사한 사람도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은 2년 동안 선교사로서 시간과 돈을 희생하였던 것이다. 또한 장로는 3년 반 동안을 이렇게 보내기도 하였다. 이때의 선교사와 회원들은 놀라운 축복과 신앙을 돈독히 하는 경험을 얻었던 것이다.

전쟁 동안에 영국 선교부는 융성하여 발전을 이루었다. 새로 침례 받는 회원수도 전쟁 전 수준과 비슷하였으며 부라운 선교부장에게 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처음 잔고의 10배가 넘는 선교부 잔고를 보유할 수가 있어 당시(1944년) 유일한 희망이었던 영국 도서에 신전 건립을 향한 조그만 전진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14년 후 씨리군에 신전 건립이 시작되었으며 1958년 9월 7일에는 데비드 오.백케이 대관장에 의해 헌납되었다.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여 주님의 계명에 대한 복종으로 예지 즉 진리의 빛을 받아 선교부와 개인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제 2차 세계 대전이라는 위험한 시기에 신앙 가운데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어머니의 타성

플로렌스 피녹



● 지상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추구하여야 할 바는 오늘의 자신보다 좀더 나은 자신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어머니는 잠시 쉴 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한다.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 우리 각자가 발전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다음의 사항은 “어머니”라는 부름에 답하는 모든 자매에 대해 주는 말인 것이다.

1. 자신도 당연히 한 사람, 특별한 한 사람임을 잊지 않음.

어머니는 때때로 가족을 위해 매일 애쓰다 보면 자신을 잊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또한 어머니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리라 생각되어 다른 사람의 눈에 띄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숙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것이 기정사실화하게 된다. 어머니의 변함없는 태도는 자신을 스스로 눈에 띄지 않도록하며 다른 가족을 보살핌에 여념이 없는 것도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생활하는 것과 주는 것은 서로 오고 가야한다.

2. 자신이 아내임을 잊지 않음.

여성중에는 첫아기가 태어날 때 까지만 아내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완전히 지배하게 되어 남편은 - 비록 조금의 관심이라도 갖고 있는 경우 - 어머니로된 것에 만족하지 않을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결과도 낳게한다. 여자가 이렇게 하도록 할 때 그는 대단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니 이는 남편의 사랑하는 아내가 되는 것은 큰 특권의 하나가 되는 것이며 삶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남편은 자녀가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아내가 필요한 것이며 여자로서도 어머니와 아내의 두 역할을 모두 감당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앞치맛자락을 지나치게 꼭 맨.

여성 중에는 매듭을 꼭 지어 자녀의 생활을 자신의 생활의 연장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 여자의 본분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지 자녀를 질식 시키는 것이 아니다.

4. 자녀와 함께 그대로 생활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생활함.

부모라고 해서 아들이나 딸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에게서 위임받아 키우는 것에 불과하다. 자녀가 강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은 어머니의 본분이며 받은 바 기회인 것이다. 매일 어머니는 조금씩 자녀에게 걷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자녀를 대신하여 걸을 수는 없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독립심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것을 본분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자녀가 독립심을 갖고 정직하고, 친절한 성인이되어 처음부터 다시 가족 관계를 시작할 태세를 갖추는 것을 볼 때 어머니가 당연히 갖게 될 자랑스러움은 얼마나 크겠는가! 이 때가 이르게 되면 어머니는 한 숨을 놓고 등을 기대어 자녀 및 손자와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다.

5. 어린아기에게 지나치게 책 기대를 걸음 어린이는 작은 성인이 아님.

어린이에게는 어른과 같이 행하기를 기대해선 안된다. 얻은바 경험은 처신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어서 어린이도 경험을 얻게 됨에 따라, 그 연령에 따른 경험에 영향받은 처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가 계속하여 어린이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게 되면 어린이는 자신을 잃게 될 수도 있다.

6. 가정을 지나치게 비움

어머니가 가정을 지나치게 비우게 되면 이의 대가로 치루는 반대 급부는 대단한 것이다. 어린이는 계속하여 자신을 보살펴 주는 어머니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가족적 안정감과 가족의 일원이라는 느낌은 어머니의 가족에 대한 사랑, 관심 및 배려의 크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다. 어머니가 너무 밖의 생활에 얽매이면 비참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것이다.

7. 자녀에게 따르도록 모범적인 처신을 명확히 정하여 보이지 못함.

어머니의 모범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어머니가 어떻게 처신하고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자녀에게 계속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는 행동 표준을 갖고자 한다. 어머니를 보면 자녀를 안다. 이 얼마나 큰 어머니의 책임을 이룬 것인가?

8. 자녀에게 신사 숙녀가 되도록 가르치지 않음.

자녀가 신사와 숙녀로 자라기 위해서는 친절, 정중함, 예절, 세련됨을 어머니로부터 물려 받아야 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언제나 숙녀로 처신한다면 딸도 숙녀가 될 것이며 아들 역시 어떻게 숙녀를 대할지 모르므로 언제나 신사로 행할 수 있게 된다.

9. 유모어를 잊음.

어머니는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추와 같아서 어머니의 쾌활함은 늘 가족이 느끼게 마련이다. 매일을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긴장 상태에 이르게 되어 어머니가 유모어를 잊게 되기도 한다. 어머니는 가정의 날씨를 좌우하는 존재이다. 어머니로부터 햇빛과 밝음이 비쳐 나오도록 하므로써 지나치게 늘 진지한 태도로만 살아가지 않고 생활의 즐거움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 기진 맥진할 지경까지 일함.

어머니의 일이 끝나는 일이 없겠으나 기진맥진한 어머니는 가정에서 거의 무가치하다. 고역이란 아름다운 말이 못되며 어머니가 자신의 생애를 노예와 같이 허송하여 버린다면 이는 추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협력, 사랑, 쾌활, 유모어, 일체라는 말은 고역이라는 느낌을 없애준다. 위에서 언급한 각 말은 음미하고 일상 생활에 적용한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생활은 아름답게 될 것이며 어머니는 훌륭히 될 것이다. ○

공과 계획

제1부

렉스 디. 파인거



교회의 교사는 막중한 자신의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복음을 가르치는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의 몇 가지 제의는 교사의 영감과 간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계획 안내

1. 공과 계획에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경전 구절, 공과 안내서, 교사 보조 자료, 인스트라터 잡지, 종이, 연필등 자료를 언제나 손에 잡을 수 있게 한다.

2. 기도. 계획하기에 앞서 계획의 주인 즉 하나님과 상의 한다. 당신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며 당신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공과 자료를 계획하고 공과를 행

하는데 있어 도움을 간구하는 것은 언제나 성령과 더불어 가르치는 전제 조건이 된다.

3. 요점을 기록함. 요점은 공과를 가르치는 기초가 된다. 공과를 한 요점에 근거하여 행하면 교사와 학생을같은 피도에 두며 초점을 잃지 않도록 한다. 요점 밑에 가르쳐야 할 사항을 부가하여 열거하면 공과의 개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요점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공과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교재의 총괄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옆두에 두고 학생들의 생활에 심어 두어야 할 복음의 가르침이나 원리의 중요한 사항을 발견하도록 한다. 찾은 사항을 문장으로 기록하여 둔다.

4. 공과 목적의 정의. 공과 목적이란 요점을 이해함에 따라 학생들이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까를 언급하여 주

는 것이다. 교재를 다시 한번 읽는다. 이때에는 공과 요점을 학생들이 이해하였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각 학생이 처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학생들이 이 복음 원리를 실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자문한다. 교사의 목적이란 학생들이 아는 바로 혹은 아는 바에 대하여 그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교사의 공과 목적을 기록하여 둔다.

5. 배우는 활동의 계획. 공과 목적을 결정한 후에는 다음의 문제를 해결한다.

가. 보여줌: 요점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래의 공과 보조 자료를 참조한다.)

나. 토론: (1) 학생들의 서로 그리고 (2) 교사와 함께 요점을 토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는 무엇을 하여야겠는가?

다. 응용: 학생들이 (1) 분반 공부에서 (2) 공과 후에 요점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는 어떻게 하여야겠는가?

그리고서 배울 활동을 열거한다.

6. 평가: 학생들이 공과에서 바라는 바에 접하게 되었



을 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교사가 가르친 바를 공부 하였을 때 또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요점을 파악하였는지 못했는지를 교사는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자답한다. 이러한 평가는 구두나 서면으로 질문을 공과 중에 하므로서 행할 수도 있는 것이며 학생들에게 경전을 찾아 오도록 하므로서 행할 수도 있고 또 공과를 마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과 내용에 근거를 둔 문제를 몇 사람에게 만들어 오게 하므로서 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 공과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행위가 기록된 도표를 사용하거나 발전 상황을 보고토록 준비하게 하므로서 요점을 생활에 적용 하였는지 판단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평가의 수단을 선택하여 이를 기록한다.

7. 과제. 적절한 과제는 할당 받은 학생들에게 가르친 복음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토록 한다. “(1) 적용을 통하여 오늘의 요점(활동)을 따르도록 하며: (2) 다음 주를 위해 준비(독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학생에게 시켜야 할 것인가?”에 자답한다.

각 학생에게 줄 과제를 기록한다.

8. 공과 보조 자료. 공과의 내용을 두 번 읽은 후에는 요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데 필요한 보조 자료의 형태를 결정하며 요점과 이를 보완하는 사항을 공과 시간 중에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결정한다.

가. 시각적 자료: 그림, 도표, 슬라이드, 영화등.

나. 청각적 자료: 전축, 녹음기, 반회원의 이야기등.

다. 소재를 경험한 사람: 배운 바 복음 원리를 실천하

는데 있어 모범적인 면을 보여 주는 경험을 갖춘 사람이 있는가? 학생들이 이 사람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인가?

보조 자료를 준비하거나 수집한다: 인스트랙터나 그의 교회 잡지를 찾아본다. 공과 보조 자료에 대해 잘 아는 사

람이나 도서실 담당자와 상의한다. 가까운 곳의 참고 그림 상점을 찾아가 본다.

3항부터 7항까지는 성공적인 공과 계획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 공과를 계획할 때 이 사항을 활용하면 훨씬 바람직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

주일학교 성찬식 전주곡



주일학교 성찬식 성문봉독

장년 주일 학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 : 5)

유년 주일 학교

“주께서 명하신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니파이 일서 3 : 7)

9월 주일학교 성구 암송

복음의 멧세지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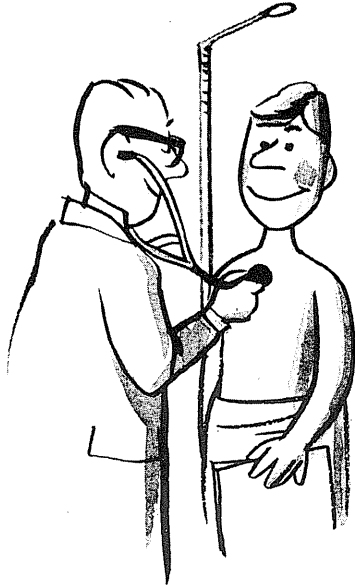
나 니파이는 부친께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니파이일서 3장 7절)

요한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상을 얻게 되는 건강의 규칙

윌리스 디. 윈



● 교회에서는 담배, 알콜성 음료 및 뜨거운 음료가 건강을 해치는 영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인바 이는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따를 때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촉진시켜 주는 그 외의 규칙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대의 자동화는 직업적 활동, 부업에서의 과업, 오락적 관심의 대상, 가정에서의 번잡한 일등과 관련된 육체적 요구 사항을 대폭 대체시키는 결과를 내었던 것이다. 우리에게 운동할 요인이 없어진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건강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늘어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 요셉 스미스의 친구 말에 의하면 그가 1848년에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공부하던 동안 “피곤하게 되면 집 주위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놀이하면서 운동을 하곤 다시 전과 같이 공부에 열중하였다……”한다.
“윌리엄 엠. 엘러드 장로는 예언자가 어린 사람들과 함께 노는 이유를 밝혀준 말을 들은 일이 있다고 하였다.
“어느 한 현자가 나무 그늘에 앉아 사색에 잠겨 있는데 활과 화살을 가진 사냥꾼이 찾아와서 그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하였다. 현자는 사냥꾼에게 활을 언제나 쏠수 있도록 줄을 잡아잡아 다닌채 다니지는 않느냐고 물었다.
사냥꾼이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대답하자 현자는 그 이유가 무엇인냐고 다시 질문하였으며 사냥꾼은 그렇게 하면 줄의 탄력을 약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다시 대답하였다. 현자는 자신의 정신력도 같아서 언제나 정신을 긴장한 상태로 두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였다. (요셉 스미스에 관한 이야기 집. 에드윈 에프. 패리 편, 1934년 미국 유타주 솔트 레이크시 메저렛신문사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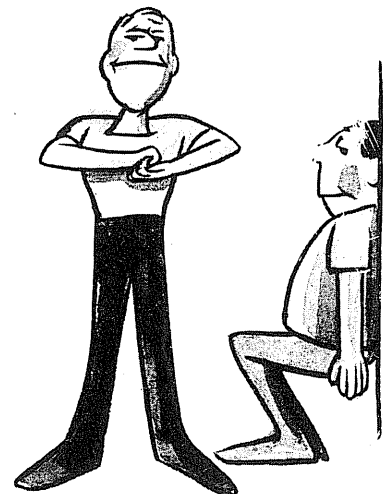
자동화를 통한 작업에서부터 탈피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도 태만하기 쉬운 중요한 방안의 하나는 육체적 활동인 것이다. 우리는 육체적 활동이 인간의 건강에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제와 요구 사항으로 이것을 건강의 율법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하는 결과를 낳았다. ●

육체적 적성

“육체적 적성”이라는 용어는 몇 가지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말이다. 질병에 걸리지 않으며 자신의 전체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육체적 조건에 적응할 수 있다면 그는 육체적으로 적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적성에 관해 좀더 완전한 견해에는 위에서 언급한 전체적인 건강과 안락함이라는 기준이 포함되는 외에도 정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질, 열성과 박력으로 책임과 본분을 수행해 나가는 것, 사회적, 문화적 및 오락상의 관심사를 대하려는 열성, 생활하는 중에 주기적으로 겪게 되는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여력이 추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적성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 받게 되는 것도 아니며 알콜성 음료, 담배, 뜨거운 음료를 삼가는 것이나 식사를 적절히 하는 것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



은 아니다. 오히려 적정이라는 것은 종교적 믿음과 같이 노력하여 얻게 되는 것이다. 적성은 의사의 지시도 받고 식사도 적절히 하며, 육체적 기능을 이해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므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운동의 형태

건강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일이므로 운동 형태를 정하는 데에도 각 개인의 취미와 필요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의 몇가지 운동의 형태는 적성의 정도에 따라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1. 저항운동: 이러한 운동은 한 근육군과 다른 근육군이 서로 대결하도록 하거나 한 근육군을 저항 목적물에 작용시키는 형태의 것이다. 이렇게 정적인 수축 형태의 운동은 6초 내지 10초로서 근육의 힘이 세지고 튼튼해질 수는 있고 신체도 훌륭히 만들 수 있겠으나 이 종류의 운동만으로는 전체적인 적성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2. 입체적 운동: 이 형태의 운동은 운동량도 좋고 근육과 관절에 일련의 운동을 야기시키도록 하는 것이니 미용체조, 역도, 골프, 말굽쇠던지기와 같은 것은 이러한 운동 형태의 전형인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충분한 열을 내어 오랜동안 수행할 때 힘, 융통성, 균형, 근육의 공동 작용, 때에 따라서는 인내력까지도 성장시켜 주는 귀중한 형태이다.

3. 집약적 운동: 짧은 기간 동안 대단히 큰 에너지를 요하며 육체에 과대한 부담을 주는 종류의 운동은 이 범주에 속하게 된다. 수영 경기, 달리기, 자전거 경기 등은 전형적인 집약적 운동이다. 이 운동은 신체에 대단한 부담을 주게되므로 훌륭한 건강 상태의 사람에게 적합한 것이다.

4. 지속적 운동: (케네스 쿠퍼 박사는 이 운동을 기호성 운동이라함) 이 운동은 혈관을 튼튼히 하고 대부분의 성인들이 이루어야 할 육체적 적성의 형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산보, 빠른걸음, 수영, 스키, 자전거 타기, 핸드볼 및 골프 (골프용 차는 타지 않음) 등은 규칙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계속하게 되면 인내심을 기르고 육체적 적성을 촉진시켜 주게 된다.

훈련 계획의 효과

육체적 적성의 혜택은 무엇인가?

미국 심장 협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에 비하여 심장에 덜 걸리는 경향이 있다. 더우기 육체 노동자는 심장에 장애를 갖게 되더라도 노후에 갖게 되며 그 강도 역시 약한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장기적으로 보아 심장의 장애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도 주는

것이다.

전신에 걸친 혈액 순환이 잘되며 폐, 심장, 기타 조직과 근육 모두가 더욱 효과적으로 결합되어 작용하게 된다.

더욱 일을 할 수 있으며 쉽게 피곤해 하지도 않게 된다.

생활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욱 커지며 정신적 육체적 긴장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커지게 된다. 운동은 근육을 튼튼히 하여 건강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휴식과 수면을 취할 때도 효과적으로 취하게 한다.

운동을 하게 되면 체중도 적절히 유지하기에 용이하며 심장병의 위험이 되는 비대증도 제거하게 된다.

용모도 균형이 잡히고 세련되어 더욱 좋아진다.

심장 질환의 다른 한 요인이 되는 고혈압 콜레스테롤도 낮혀질 수 있게 된다.

의사, 생리학자, 심장병 학자, 심리학자들의 연구로서 지적된 바를 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노후까지도 활동적이며, 퇴행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더욱 강해지고, 긴장과 불안을 덜 느끼고, 일상 생활에서 훌륭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시작하는 방법

신체를 조절하는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중요한 과정을 따른다.

1. 종합 신체검사를 받고 의사와 상의한다. 의사의 생각과 추천 방법 그리고 때때로 받게 되는 주의말을 귀담아 듣는다. (매년 신체 검사를 받는 것은 건강의 규칙의 하나로 되어야 할 것이다)

2.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 모든 연령과 관심 여하에 따른 적절한 운동 계획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3. 운동 계획을 결정한다. 한 주일에 최소한 3일은 운동을 하며 하루에 30분 내지 60분은 계획에 따라 신체를 단련한다.

4. 처음에는 서서히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히므로서 무리한 근육통과 사고를 예방한다. 운동이 현 신체 조건에 익숙해지려면 몇 년이 걸리게 된다. 운동화하는 것이 습관화 되는데도 몇 개월은 걸리게 된다.

5. 일관성 있게 한다. 목표에 도달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간교한 태도로 계획을 매우는 것으로 자위하지 말고 중간에서 그만 두지 않는다.

6. 변화를 주어 재미있게 한다. 오직 "운동"만 한다는 것은 고역이다.

7. 지속성있게 한다. 운동의 결과는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도 남는다.

8.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한다. - 산보, 등산, 스키, 수영, 보울링, 정원 가꾸기 등

지혜의 말씀에 복종하므로서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힘이 다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얻기는 하였으나 운동은 이러한 약속을 대단히 효과적으로 이루도록 할 것이다. ○



상향회와 친구

● 주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라고 말씀 하셨다. 친구를 구한다면 틀림없이 이를 상향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충실함, 성실, 사랑, 창의성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관념의 표준과 이상은 상향회 회원들이 지지하는 것들이다. 상향회에서는 영원한 우정을 낳도록하는 모임을 매주 주선하고 있는 것이다.

선교사 안내서의 전면 표지에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다음과 같은 말이 인쇄되어 있다. “큰 겸손과 진실함으로 나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되 사람들의 신앙이나 종교 체제에 대해 논란하지 말고 오직 확고한 대의만을 추구하라. 나는 이 말을 계명의 방법으로 전하나니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스스로 머리위로 박해를 끌어 내리는 자가 될 것이나 그대로 행하는 자는 성령으로 늘 충만히 될 것이다. 이는 한 예언이니라.”

상향회란 이 예언을 이루는 한 가지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니 이는 상향회가 회원이나 비회원에게 꼭 같이 개방되어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종교 체제에 대해 논란하지 아니하고 겸손과 진실로서 확고한 대의만을 추구하며 일상 생활에서 복음 원리를 관철시키므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상향회의 공과시간을 통한 달성표창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다면 다른 형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서도 수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모임은 세상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순결하고 결백한 몸과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정을 구하며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소와 젊음의 약동을 보이는 외형은 오직 내재의 기쁨과 순수한 사고로부터 갖추게 된다.

16, 17세의 상향회 소녀는 월계의 신조를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 월계는 인생의 문턱에 서서 구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위대한 보물을 내 앞에……”

12, 13세의 벌꿀만 소녀들은 “나는 숙녀됨을 존경한다”고 입을 모아 되풀여 각자 실천하는 것이다.

14, 15세의 장미반 소녀는 장미의 순결을 신조로 삼으며 일상 생활에서 이를 적용시키고 있다.

18세부터 25세까지의 이삭줍기반 숙녀는 정직, 진실, 순결, 자비를 좇고 있는 것이다.

12, 13세의 전위대 소년은 “내 명예를 걸고…… 하겠으며, …… 하겠다”고 말하므로써 자기에게 부과된 일련의 과제를 이루는 것이다.

14세부터 18세까지의 탐험대와 기수반 소년은 탐험과 지도력과 훌륭한 추종자가 되기 위한 새로운 고지를 점복하기 위하여 전진한다.

봉사반원 청년은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나의 생애가 인류에게 최선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스스로를 순결히 하겠으며 부정에 과감히 대결하며, 용감함과 겸손을 보이며, 참된 스포츠 정신을 발휘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위에서 언급한 서약과 행동 규범에 좇아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원한 우정을 계속시키고 흥미있는 경험이 연속되는 생애를 향유할 방대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정의 기초는 상향회에서 노여진다. 청소년에게 복음의 원리를 일상생활에 관철시키도록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향회에서의 공과 시간과, 방송과 활동인 것이다.

교사와 참석자중에서 가장 진실한 친구를 구하는 자는 찾을 것이며 그렇게 행하며 생활하므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하는 것이다 ○

무엇을 행해야 할 권능인가?

활동이 끝난 후 두 청년이 다과를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말은 보통 우리가 듣는 말과는 좀 다른 것이었다.

“신권의 권능이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간 제사로 임명되어 성찬 축복을 돕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무슨 권능이 내게 있단 말이죠?”

친절한 태도로 열은 미소를 보이고 있던 좀 나이가 든 청년은 “내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도 꼭 같은 생각을 했어. 이해하지를 못했던거야. 어느날 한 부인이 내게 병든 아기를 축복해 달라고 데리고 왔어. 나에게 말야! 나는 주님의 도움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으려고 열심히 기도를 했었지. 이때 나는 아기의 어머니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는 있었겠으나 어머니가 바라던 바는 신권의 도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아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주께서 아기를 고쳐 주신거야. 이 이후로 나는 신권의 권능이라는 것을 알았지. 신권은 소년단 활동과 같은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과의 협력으로 특별하고 필요한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이야. 이렇게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니 나는 이 사실을 알며 이 사실은 내 생활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도 나는 알고있어.”하고 설명하여 주었다.

나와 내가 지니고 있는 신권에 대하여는 어떠한가? 나는 신권이 생애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었는가? 다음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을 들어 보기로 하자.

친구가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당신도 같이 있었다고 하자. 어떻게 하겠는가?

스टे이크 간의 경기를 위해 빠스를 타고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한다고 하자. 어떻게 하겠는가?

학교에서 같은 과의 활동을 하는 여학생이 교회에 대하여 좀더 알고 싶다는 관심을 표하여 왔다. 어이하겠는가?

인간의 악한 계략

존 에이치. 반덴버그



● 체육계에서는 경기에 임하기 전 우선 상대방을 탐지하는 것이 공인된 과정으로 되어있다. 상대방의 전반적 전략을 분석하는 이 과정은 상대방의 작전을 교란하여 강력하며 효과적인 방어를 하자는 데에 기인 되는 것이다.

오늘날 주께서는 매우 현실적인 점에서 모든 의를 대적하는 존재의 계획에 우리를 예비시키시려는 의도를 보여 주신 바 있으니 당신께서는 매우 명확하게 “말일에 모의를 피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악과 음모”를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다. 이렇게 음흉한 획책을 품고 있는 사람의 목표는 우리의 육체와 의지력인 것이다. 태초부터 사탄은 하나님 자녀의 육신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사고와 행위를 지배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가 고매의 가인을 유혹하여 형제를 죽이게 한 요인이었으며, 이러한 요인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전과 같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사탄은 인간의 몸을 파멸하고 정신과 육체를 노예로 만드는 불질을 유명해지도록 하였으며 괴변으로서 사용을 수식하

였다. 그결과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인간이 적지않게 되었으니 수백만의 사람들이 담배, 술 및 비도덕과 폐가 망신에 이르게 되는 물질들 복용하므로써 영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사탄은 고대의 전략을 탈피하여 전략 전환을 이루었으니 이로서 인간의 육체에 공격을 가할 뿐 아니라 의지력까지 뺏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19세기까지만 하여도 각국에 스며든 약의 무모한 과용이었다.

기독교 선교사가 19세기 말엽에 보고한 것을 보면 썰론의 어느 마을은 아편으로 인하여 온통 폐가 직전에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마을에는 가족이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고, 집들은 모두 썩어 무너질 것 같았으며, 사람이 살고 있다는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보고에 의하면 1897년 한 해 동안 썰론으로 수입된 아편이 8,218 kg이나 되었다.

이와 유사한 상태의 나라가 인도였다. 먹을 것이 없던 영국 통치의 인도에서는 1899년 564,000 에이커에 해당하는 경작지가 곡식이 아닌 아편 재배에 사용되었었다.

중국도 이와 같이 소름끼치는 비극에 잠긴 나라였다. 19세기 중에는 가장이 아편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독한 가난에 해멘 가족이 수 없이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아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아내와 딸을 파는 일생의 수치를 면치 못하는 예도 빈번하였다.

중국에서는 아편 중독 현상을 삼대, 사대 혹은 오대에까지 걸쳐 볼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중독된 아기는 6시간 마다 아편을 피워 얼굴에 붙여주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곤 하였던 것이다.

이때 중국을 여행한 사람은 죽어가는 거지가 음식을 구걸하지 않고 아편을 구걸하더라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였다.

이와같이 과거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약의 사려없는 과용으로 정신과 육체가 노예화한 사람을 보아왔었다. 비록 이러한 것이 의곡된 주장으로 어느정도 위장 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경우가 오늘 날에도 널리 유행되고 있는 것이다. 모략을 하려는 인간은 교묘하게 사실을 의곡한 문구를 약에 붙여 퍼뜨리고 있으니 예를들면 LSD와 같은 환각제를 “마음을 트게 하는 약”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복용하면 인간의 가장 귀중한 은총이자 권리인 자신의 마음을 주체하고 조절하는 힘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친구의 권유로 한 청년이 LSD를 복용하여 쾌감을 맛보기로 작정했다. 친구의 말로는 아름다운 색깔을 보게 되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훌륭한 경험을 갖게 된다는 말만 해 주었지 그와는 다른 비극적인 경험이 될 가능성이 더욱 많다는 말은 들려 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 청년의 사건을 다루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투라군의 지방 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가 LSD의 영향을 받는 동안 이 청년은 정신이상이가 되어 어머니와 아버지를 살

해하려고 하였다. 부모들의 비명소리는 이웃 사람에게까지 들려 이웃이 달려오므로써 가까스로 아들을 붙잡아 말리게 되었다. 지금 이 청년은 정신병원에 있는데 의사에 말에 의하면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성적이 좋은 대학생이었고 훌륭한 청년이었으나 이제는 폐인이 되고 만 것이다.”

과학자들은 LSD를 취하는 것은 소련의 약학계 침투라고 말하고 있다. 약의 과용으로 따른 최대 공포라 함은 복용자가 자신의 정신력에 대한 주체력을 방종한 화학물질에 이양하게 된다는 것이다.

LSD의 복용에 따른 출산 장애와 기타의 심한 나쁜 영향이 알려지므로 공공연하게 권장하던 것이 줄어든 한편 마리주아나 마취제와 같이 소위 순하다는 약품이 점차 퍼지고 있으나 이 점에서도 근본원리는 다르지 않은 것이다. 마리주아나의 복용자는 자신의 의지력을 예측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난폭한 결과를 내는 약품에 넘겨주는 것이므로 여기서 우리는 소위 무해하다는 잡초에서 추출한 것을 우리에게 내놓는 모략적인 사람의 술책에 넘어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들이 의도하는 바는 헤로인, 몰핀 및 아편과 같이 심하고 신진대사를 중독시키는 약품으로 젊은이들을 점차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최근 솔트레이크시 학군에서 연구하여 밝힌 젊은이들은, 자기들을 폐인이 되게 하며 의지력을 박탈해 가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술책에 실제로 현혹된 젊은이들은 대단히 적을 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에는 감사하기 그지없다.

교회의 청년에게는 상대방의 전략이 민속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주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 : 16 - 17)

누구도 허락을 얻지 못하고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그가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육체를 창조하여 주시고 따라서 인간에게 무엇이 최선의 것인가를 알고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할 것이지 시험삼아 해서는 결코 안되는 것이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의지력은 우리가 받은 바 가장 귀중한 은총이니 이것이 없이는 삶이라는 것도 큰 의미가 없이 될 것이다. 신권의 소유자로서 그리고 교회의 숙녀로서 여러분은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향해 끝까지야 한다. 그리하면 아무도 이 악한 계략에 유혹되지 않으리라. 이는 여러분이 악한 계략을 알뿐 아니라 주님과 여러분의 지도자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복음의 계획을 따르므로써 여러분들은 생애의 모든 투쟁에서 상대방에게 패배를 맛보지 않게 될 것이다.

○





하늘 문

선교부장 서 현보

● 지난 한 달을 한국 성도들이 십일조의 원리를 주님이 우리들 인간에게 제시하여 주신 바대로 이해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보냈습니다. 특히 저는 모든 회원이 다음 두 가지를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즉 여러분이 이 율법에 순종하므로써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첫째이고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다 하지 못했을 때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 둘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할 바를 다 했을 때 백성에게 부여할 축복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 한번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해보자”고 어떤 사람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잘 설명하여 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드리겠습니다. 교리와 성약 130편 20,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을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확실히 십일조의 법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라기 3장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은 물론 가족과 사업의 번영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의로운 노력으로 그분의 축복을 간구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지만 과연 그러한 축복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일조를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킬진대 말라기서에 나타난 그런 상태의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받은 축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 문”이라는 교회 영화를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혹시 못본 사람이 있으시면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좇아 십일조를 헌납한 성도의 무리가 받았던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십일조를 바쳤던 사람에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간증은 이루어져야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저는 며칠전에 세계 제 2차 대전 직후 일본에서 선교사로 일한 바 있는 형제를 통하여 그 당시 일본에 있었던 아주 적은 지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이 가져다 준 유산으로 모든 사람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몸을 따뜻하게 감쌀 옷도 없었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은 지부 회원에게 만일에 그들이 많은 적든 간에 자기 수입의 십분의 일을 주님에게 바치면 축복을 받으리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회원은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리하여 현재 그 지부의 회원은 사업에 성공도 하고 좋은 직장과 행복한 가정을 얻어 부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부 예배당도 갖고 역원도 완전히 조직 되어 성장의 속도가 어디 보다도 빠르다고 합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십일조란 새로 생긴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엘마, 야곱, 모세, 헤스기아, 느헤미야도 경전을 통하여 아는 바와 같이 십일조를 바친 분들이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119편 4절에 보면 이에 대한 말일의 계시가 있습니다. “(먼저 이를 실행한) 연후에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이후부터는 매년 저들이 얻은 모든 이익중 십분지 일을 바치라. 이로써 나의 성신권을 위하여 저들이 지켜야 할 영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십분의 일”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들 각자에게 달려있다 하겠습니까. 조셉 에푸 스미스 대관장님은 대회 연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 하셨습니다. “십일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는 자기 스스로에게 달려있다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 만큼은 원하는 대로 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바라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산하여 바치는 것 만큼 계산되어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에누리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러실지 모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우리는 얻는 게 없어질 것입니다.”

전쟁 포로로 고초를 겪던 병사가 목숨만 건진다면 평생 자기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굳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그는 죽지 않고 석방되었습니다. 포로로 있던 기간을 계산하여 받은 봉급의 십분의 일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오늘도 자기 수입의 십일조를 바치는데 “혹시 잘못 계산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십분의 일 이외에 십분의 일을 더 냅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십일조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것이로다.”(시편 24: 1)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중 십분의 일을 다시 바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대가는 하늘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율법에 순종하여 지부와 지방부가 성장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과 가정의 발전을 꾀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이 율법을 무시하면서 성장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

비판받지 않으려면

중앙지방부장 차 중환



● 칭찬을 받거나 책망을 듣는것 혹은 복을 받거나 화를 입는 것은, 모두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실과 품행이 착하고 의로우면 칭찬과 영광이 자기에게 있을 것이요 행실과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면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각자 자기의 일은 자기가 살펴야 한다고 역설 하였습니다.

7월 성도의 벗에서 맥케이 대관장님은 “교회 안에는 협조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의 두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교회의 부름을 즐거히 받아 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결점이나 찾아 내려는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불만 불평의 명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자문하여 봅시다.

우리는 지도자의 뜻을 좇아야하고 불평, 비방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쓸데 없이 자기 자신을 피로하게 하며 괴롭게하며 더 나아가 커다란 과실을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면 오히려 자기가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입을 살펴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는 입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남을 비평하기는 쉬우나 내가 비평을 받지 않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말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곧 완전한 사람이 되며 능히 온 몸을 구하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옛말에도 혀는 복과 화의 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혀를 조심하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하고 아름다운 말만을 해야 하며 또 끊임없이 노력해야겠습니다.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하고 감화를 받게 하는 아름다운말 그것은 곧 말하는 사람을 아름답고 깨끗하게도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발언은 산울림과 같은 것이어서 내가 악한 말을 하면 그것은 도루 내게 악한말로서 들려오고 선한 말을 하면 나도 선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악하고 추한 말, 남을 비평하는 말, 망령된 말은 하지 맙시다.

바울은 나도 나를 논란하지 안는다고 했습니다. 심판하실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선인들은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만올가

하노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일 인간이 자신의결점을 알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남의결점을 이야기할 시간 여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자세나 정신은 형제, 자매애를 파괴합니다. 사랑을 파괴함은 가장 그릇된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잠언에 “경멸하지 말라. 사람을 업신 여기면 주님을 멸시 함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에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나노 교회를 멸시 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자는 남의 눈의 티를 못본다고 했으니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제거 해야 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자 일수록 남의 눈에 자그마한 티가 더 잘 보이는가 봅시다.

사람의 심리는 이상해서 자기의 허물과 죄는 다른 사람의 죄로서 가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늘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자기의 허물과 실수가 가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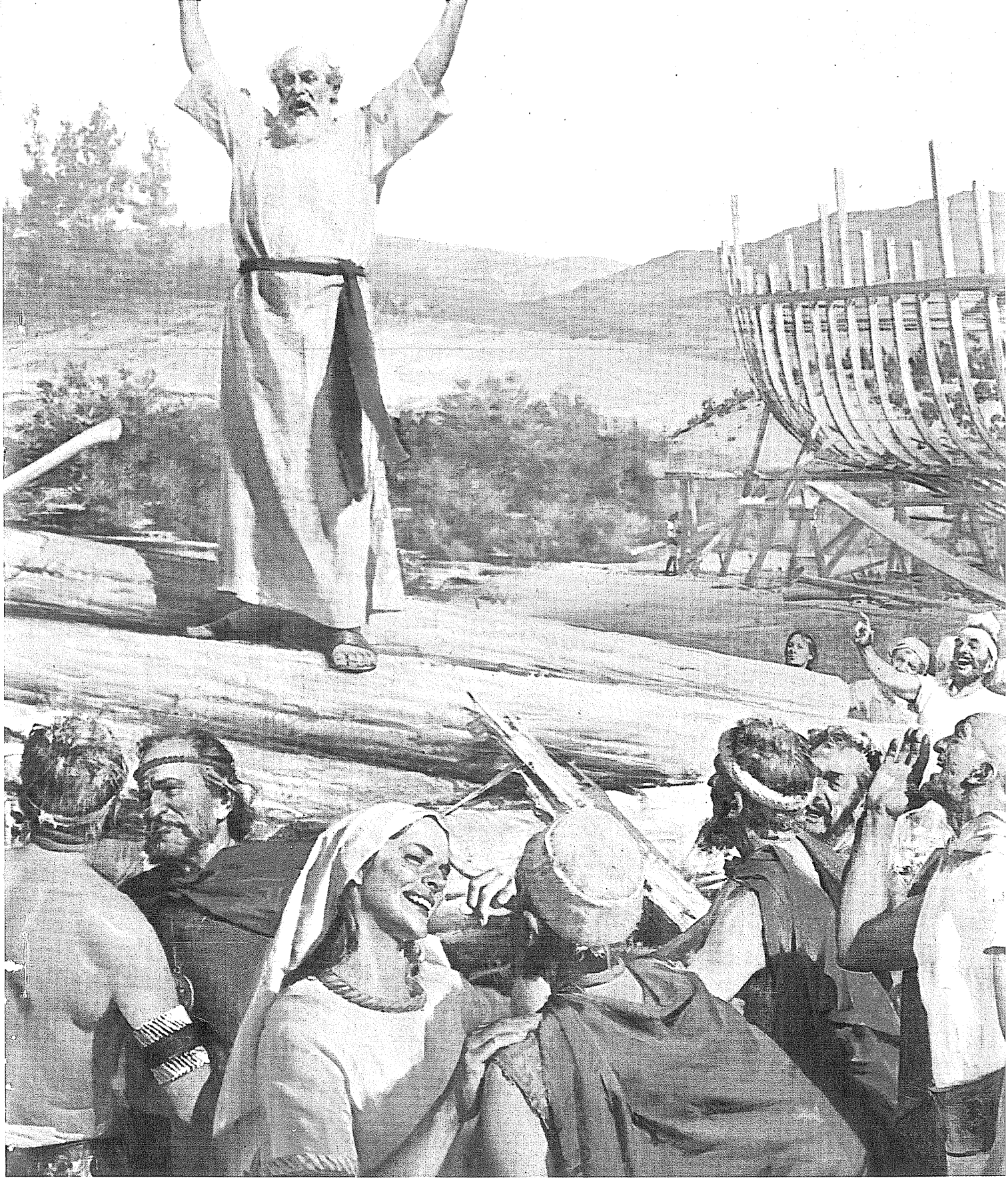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여 실수가 많았지만 일의 선봉이 되고 열실하는 점을 보고 택했고 도마는 의심이 많으나 일에 주밀성이 있는 점을 보고 택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사물을 볼 때 색안경을 쓰고 보아서 는 아니됩니다. 색안경의 색에 따라 사물의 색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제의 악하고 어리석던 갑과 을은 오늘과 내일에는 선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고 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유동하며 매일 동일한 존재로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대로 행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아들 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일에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자기 완성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 성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성도들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성도의 빛 8
1969

홍수를 경고하는 노아

부록 제 139 차 연차대회의
대관장단 말씀

다니엘의 돌은 구르고 있다.

잭 이. 제라드

천지 뉴스 편집장

"...우상을 쥔 돌은 레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니...." (다니엘 2장 35절)

선지자 다니엘은 진흙으로 된 밭을 가진 큰 짐승에 관하여 곧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 돌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커져서 이 지구를 메꾸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139차 년차 대회를 통하여 발표된 통계를 참고하여 보면, 이 돌의 운동량은 한층 커져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관장단의 요셀 엠더슨은 토요일 오후 총회에서 언테 보고서를 낭독하였는데 1968년 말 현재 교회 회원 총수는 2,684,073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그는 작년 한 해 동안에 7만 이상의 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139년전 교회 조직 당시의 6명에 비교할 수도 없는 숫자임을 지적하였다.

1830년 4월 6일을 기점으로 구르기 시작한 이 돌은 차츰 속력을 내면서 십년 후에는 3만 명으로 늘었고, 1850년에는 6만명의 회원을 자랑하기에 이르렀다.

1930년 4월, 그러니까 교회 조직 100년 기념 총회에 참석 하였던 회원은 교회 회원 총수가 672,488명이나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성도가 쉴즈레이크 계곡에 정착하여 한 세기가 되는 1948년에는 1,016,170명이나 되었다.

완전한 조직을 갖춘 스테이크에 2,207,876명, 그리고 83개 선교부에 적을 두고 있는 476,097명으로 되어 있다.

1968년 말 스테이크 수는 1967년 보다 25개가 많은 473개나 되는데 이는 1948년 12월 31일 현재 기능을 발휘하고 있던 스테이크 170에 비교하여 303개나 상승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968년 스테이크 내의 워드 및 지부 수가 4,385개나 되는데, 이중 3,721개는 완전한 조직을 갖춘 워드임을 통계 보고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물론 이 숫자는 선교 지역에 속한 2,112개의 지부는 제외된 것이다.

작년 통계를 참고하여 보면 488 스테이크 내에 속한 워드 3,544와 독립 지부 622를 합쳐 4,116으로 나타나 있다.

스테이크 및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의 노고는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들 선교사의 노력으로 칩레의 문에 들어선 사람의 수는 64,021명이나 된다. 1930년, 1948년 보고서를 비교하여 보면 재미 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30년 1년의 개종자 총수는 6,758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48년에는 10,471 명으로 뛰어 올랐다. 1967년에는 이 숫자가 62,280명의 새 회원이 증가하였다.

1968년 중에는 기록상에 나타난 어린이 53,482 명이 스테이크 및 선교부에서 칩레를 받은 바 있다.

교회 회원의 사망율은 조금 상승하였으며 출생율은 약간 떨어졌다.

1968년 천명당 출생율은 1967년의 27.55에 비하여 27.49로 떨어졌으며, 사망율은 1967년의 5.05에 비하여 5.17로 올랐다.

보고서를 보면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을 마쳐야 한다는 선지자 말타기의 예언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증명되고도 남는다.

1968년에는 죽은 자를 위하여 수행된 의식 수 6,218,750건, 산자를 위한 의식은 54,895건,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13개 신전에서 수행된 의식 총수는 6,273,645건에 이른다.

4,565,766회의 의식을 집행한 1967년에 비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종교 학원, 씨미나리를 포함한 교회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의 수도 증가하였는데 교회가 운영하는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수는 215,602명이나 된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는 신권 소유자의 수가 26,850명이나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1968년 12월 말, 아론 신권 소유자 총수는 339,496명,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321,394명으로 모두 660,890명이다.

보조 조직 또한 등록 회원 수, 평균 참석율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상호부조회 회원 수는 311,871명, 주일학교 평균 참석 수 878,901명, 청년 상향회 등록 회원 수 337,819명, 청년 상향회 323,745명으로 나타나 있다. 초등학교는 460,975 명의 등록 회원을 가지고 있다.

무책임과 이혼으로 위협받는 가정의 구조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아들 로버트 알. 맥케이 대독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저의 영혼은 깊이 감동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한 특수한 환경과 경험이 조화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오늘 만큼 주님의 축복에, 교회 회원의 신앙과 기도에 감사해 본 적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복음의 회복과 그 회복에 따른 영광스러운 말씀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속주이시며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이며,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여 그분의 면전에 불멸의 존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해에 교회가 달성한 발전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총 관리 역원을 위시하여 교회의 일반 역원이 보여주시신 일사 불란하고 부단한 협조에 감사합니다. 또한 보조 조직 본부 임원, 스테이크에서, 정원회에서, 워드에서, 선교부에서, 넓게는 교회 회원 여러분의 신앙, 헌신, 중심에 감사할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교회 139차 연차 대회를 위하여 이 역사적인 태버나클에 모이신 정계 및 교육계 인사, 지역 대표, 멀고 가까운 곳에 흩어져 있던 스테이크, 워드 보조 조직의 교사 및 역원 여러분과 방송이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친구와 회원에게 뜨거운 인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수 개월 동안 저는 혼란과 그릇된 이상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이룩한 인류의 발전과 번영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범죄의 증가, 법과 질서의 경시,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이혼율의 계속적인 증가, 모든 형태의 악을 수반하는 부도덕, 인류의 자유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귀한 원리를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우리들 인간은 세상을 휩쓸고 있는 불행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사려 깊으며 진실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며 필요하다면 향상된 인생 행토를 용감하게 선택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마음을 쏟지 않으면 안될 시기입니다. 심도 수 많은 사람이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재 확인하여 결정할 단계입니다. 그들이 마음 가짐과 생활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세상은 언제까지나 혼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문명 또한 붕괴의 쓰라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부터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현상은 슬프지만 수긍하지 않으면 안될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랑곳 없고 자신의 영달만을 위하여 일한다는 요소가 대부분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불경은 도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보다 높은 신성을 필요로 하는 세상입니다. 불경을 피하지 않으면 안될 요즈음입니다. 자제력을 키워야 할, 동시에 이기심을 버려야 할 세대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누가 22장 42절) 그리스도는 오셔서 확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생활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무서운 투쟁과 분쟁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맹목적인 분쟁을 유발하여 그에 의례히 따라 다니는 불행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지도자의 악한 마음에서 전쟁은 생깁니다. 자유가 승리하여 평화가 이 땅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전쟁도 끝이 나고 그리하여 선의의 모든 사람이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너무도 노골적이며 충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진실한 마음의 소유자는 전쟁을 도발하였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의와 자유가 악과 억압을 이길 날이 와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바이지만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 새로운 이상을 설정하지 않은 한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위대한 인간을 만들고 키우는데 근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바로 가정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만, 국가의 힘은 국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의 현명하고도 제제가 잡혀 조화된 가정에서 비롯합니다. 조화된 가정에서 우리는 하늘 나라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안에 안져 있는 아기가 처음으로 자기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며 어머니의 키스를 통하여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게 되며, 어머니의 애정과 보살핌을 통하여 이 세상에도 사랑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 병사 40명과 함께 풀먼차를 타고 여행하던 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주 신사였고 어느 누구에 건주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야기하던 중에 한 젊은이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의 아버님도 백발이세요." 그리고는 깊은 감정을 표시하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오늘 아침같은 날 그분의 백발을 뵈었으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해외 출정을 앞두고 마지막 야영 훈련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자유 의지 뿐만 아니라 가

정과 사랑하는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 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젊은 병사가 느꼈던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깊은 감정은 가정과 관련된 미국 병사들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할지도 모를 적을 몰아 내기 위하여 목숨도 바칠 각오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할 책임은 의면한 채도 부부로서의 패락만을 좇으려는 태도는 현재 미국 가정의 구조를 크게 위협하는 악 의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지혜와 상호 배려의 태도는 앞으로 가정에 생갈 자녀를 결정짓게 된다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가정은 자기들이 십대에 처했을 때부터 시작한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에 결혼한 부부가 축복을 받아 자녀를 갖는 경우 이 둘 자녀의 건강은 결혼 전 부모의 행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신문, 강단, 특히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려주어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미래의 행복 또는 불행의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자신의 육신을 깨끗하게 지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준비하여야 하며 때가 이르면 비겁하고 속임수에 젖은 방법이 아닌 영예롭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아버지의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사기만 보다 나쁘다고 하겠습니다. 미래의 아내와 자녀의 행복은 청년이 젊었을 당시의 준비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소녀에게는 모성의 거룩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성을 창조하는 부분에 이르면 성스러운 경지에 다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어머니는 부모로서 그들의 육체를 깨끗하고 순수하게 지킬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자녀가 죄악과 밤마토 뒤섞인 세계로 빠져 들지 않도록 주의할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받지 않을 출생, 고상한 품성의 상속등은 어린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중 가장 큰 것입니다. 어머니라 하여 젊었을 때 즐거운 과거도 생각될 설에 탐닉하거나 유해 약품이나 용납할 수 없는 죄에 빠져 자녀의 평생을 구속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수한 열등의 어머니가 되고져 하는 사람은 그들이 소위 열등에 가득한 젊은 시절을 보낸 결과 즉, 세익스피어의 표현을 빌리면 "추근 추근한 이마간 병약과 허약을 찾아 구애하여"하면서 병약 또는 기형아를 갖지 않을 생활을 영위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를 뒤덮고 있는 악은 부정입니다. 저는 요셉 에후. 스미스 대관장님이 살아계실 때 즐겨하시던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육신과 사회의 정신을 기형으로 만드는 것은 몸서리 나는 암이 아니라 성적 범칙의 가공할 고통이다. 삶의 바탕 자체를 좀먹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결과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죽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제20권 739페이지) 젊었을 때 부정한 청년은 배우자의 부모가 자기에게 배폰 신티에 정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소녀 시절에 정숙치 못한 여자는 미래의 남편에게 정지하지 못합니다. 불행과 의혹과 가정 불화의 기초를 놓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교사를 나쁘게 생각지 마십시오. 다만 정절이야 말로 이 세상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의 하나가 되는 덕성이라는 영

원한 진리를 가슴속에 넣어 두기만 하십시오. 남심다운 남성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여성이 갖추어야 할 영광스러운 덕성입니다. 이는 붉은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진리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주요인입니다. 교회의 제반 표준을 위엄있는 방법으로 지킨다고 하여 위신이 손상될 이유는 하등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는 왔지만 이른 바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정절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정숙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감음하지 말찌니라."고 시내산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 20장 14절)

이 세상을 끌어내리는 힘이 부서울 정도일에는 틀림이 없으나 젊은이가 의도한 사고력을 기르며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데 전념한다면 쉽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오래동안에 걸쳐 계속되어온 진리와 비 진리간의 투쟁은 점차 심각하여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이 진리를 이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도덕의 타락과 명예, 고결의 원리를 경시하는 경향이 사회, 정치 및 사업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교회가 결혼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태도는 교리와 성약 49편에 다섯 마디로 인상깊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여 주신 것이니라." (교성 49편 15절) 1831년 요셉의 나이 25이였을 때 주어진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주어졌던 상태를 생각하여 보면 요셉이 주님의 영감을 받은 분이라는 확증의 일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워드, 정원회 및 보조 조직을 관리하는 역원이 코이신 이 자리에서 이 계시에 나타난 승고한 결혼관을 그대로 유지하며 아울러 우리의 이상적인 가정의 표준을 저하시키는 위험물을 작구 막아야 할 책임은 다름아닌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생활이란 높은 이상을 설정해 놓은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젊은이가 품을 수 있는 이상으로 결혼을 성스러운 의식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충만한 젊은이에게 있어서 그들이 세운 표준은 연애 과정에서 밤파제가 되며 그들의 사랑을 완전한 상태로 승화시켜 영원한 결합을 가능케 하는 신전을 못가게 하는 제반 요소를 피하게 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은 이생과 저생의 행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고 선하게 만드는 것도 이러한 이상의 표준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올라가게 해 줍니다. 만일 결혼에 대한 높은 이상을 간직하고 그 이상을 위하여 노력할때 우리는 위에 말씀드린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시대의 사조로 보아 결혼이란 성약의 성스러운 그야 말로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느 때를 막론하고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고 그대로 결혼 의식을 갖는 장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 증서도 얻을 수 있고 그럴듯한 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물에 현혹되어 성급히 결혼할 부부중 심망과 슬픔에 허덕이는 예는 허다합니다. 단순한 범람도 허가되는 부도덕을 조장하는 기뢰라 하겠습니다. 참다운 이상에 얼마나 뒤떨어진 생각입니까? 능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가 심급하고도 남에게 알리지도 못하는 결혼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험 결혼을 조장하며 결혼한 여성이 남편 이외의 남성을 갖는 것도 그저 단순한 친구를 하나 더 아는 정도로 밖에 생각지 않게 하는 소위 결혼 제도의 탈피를 부트짚는 문턱이 미치지 않음도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부모, 특히 어머니로서의 책임은 섬스러운 것으로 압지 않으면 안됩니다. 인간 영혼의 심연에는 무관심한 부모에게는 의식적으로 반발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영혼속에 친리를 심어 주셔서 어린이와 젊은이를 보호할 책임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가정은 떠난 외적인 영향 즉 학교나 교회로 전가하려는 경향이 면저히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적인 영향도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가정에서의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자녀를 보살피는 위치에 서서 계속적으로 훈련하며 보살피 주며, 동반자가 되어야 가정을 완전한 채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성격은 대개 인생의 처음 12년 동안에 형성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에 16배나 되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에 비하면 126배나 됩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속한 가정의 표시를 달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다운 가정에서야 아이다운 아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원에 가이여 과학자인 루터 버뱅크는 아이를 교육하는데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아주 인상적인 말로 강조하였습니다.

"자존심을 갖도록 가르치라. 훌륭한 방법으로 나무를 가꾸는 것처럼 자존심을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으로 위대한 철학사가 된 예는 없다. 무엇보다도 명심할 것은 반복이라는 점이다. 영향력을 계속 반복하여 영원히 발휘한다는 것이다.

"나무의 특성을 고치는 방법이다. 어찌할 수 없이 고쳐져 다시는 변하지 못할 때까지 계속하여 영향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실패하여서는 안된다. 여러분은 그 어느 나무보다도 귀한 어린 아이의 영혼을 기르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에게 꼭 물려 주어야 할 것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1) 훌륭한 이름, 2) 안전하다는 감정을 갖게 함, 3) 발전의 기회를 부여해 줌이 그것입니다. 가정은 곧 자녀에게 이름과 사회에서의 지위를 물려줍니다. 어린 아이란 자기가족이 다른 친구의 가족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어머니를 연상할 때마다 영감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린이는 세가지 기본 특권 즉 첫째 합당히 불릴 이름, 둘째 안정감, 셋째 발전의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가정은 어린이에게 이름을 주며 사회 내에서 신분은 갖게 하는 곳입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자기 친구들의 가족이 훌륭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소원은 자랑스럽게 자기 부친을 남 앞에 소개하며 자기 어머니를 생각할 때 항상 영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가진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순수한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생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역시 자기의 모범을 본받고 자녀가 섬량한 시민이 되며,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생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린이는 가정이 외부 세계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피난처이며,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장소라고 생각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단합이나 성실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데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어린이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행복한 생활을 하는 부모나 이상적인 생활의 답성을 바라며, 희망을 품고 부지런히 일하는 부모나, 진심하고 이기심이 없는 사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다시 요약해서 말한다면 어느 정도의 통찰력을 가져 건전한 정신으로 균형이 잡혀 있으며, 물질적인 유익을 주는 이상으로 어린이의 발전에 더욱 이바지 하는 점서적인 환경을 자녀에게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모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변함없는 이혼은 어린이들로부터 이러한 유익을 빼앗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혼한 부모들 가진 이제 겨우 여덟살 난 어느 소년에게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매우 슬픈 사연의 편지 한통을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서 소년은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데이비드 오. 펙케이대관장님께, 저는 한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 엄마와 아빠에 관한 문제예요. 엄마와 아빠는 이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소년의 형제 자매를 의미함) 다 같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저는 대관장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 어린이에게는 얼마나 슬픈 비극이며, 또한 이같은 부모의 헤어짐이 자녀들에게 끼친 불행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요.

오늘날 미 합중국의 날로 격증하는 이혼율은 이 나라의 위대한 사회로 향한 발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와 우리 주의 이혼 비율의 증가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경전에 비추어 볼 때에 고대나 현대나 우리들은 결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상은 파란없는 단란한 가정이며 이혼을 유발시키는 조건은 그분의 신성한 가르침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당연히 결혼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정이나 다른 극단의 조건을 제외하고 교회는 이혼을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며 총관리 역원들은 교회 회원들 사이에 이혼하는 경우가 불어남에 심히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남자가 결혼의 서약에 진심하겠다고 주님의 집에서 섬스러운 성약을 하여 놓고 얼굴이 곱고 용모가 단정한 어떤 젊은 여성이 나타나 자기에게 미소를 던지며 유혹하는데 그만 자기 편에서 부인과 자녀들과 헤어지려 한다면 자기들이 한 섬스러운 결혼 성약의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설혹 법 해석이 명확치 못해서 이런 남자에게 이혼 증서를 내어 주었다 하더라도 저는 그가 또다시 신전에서 두번째의 결혼을 하게 하는 주침은 합당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여성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자기의 가정을 파란에 이르게 하든 아니면 자기 남편에 대해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찬가지로 자기가 주님의 집에서 행한 성약에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결혼의 파란에 대해 말할 때는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슬픔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쌍의 부부가 서로 서로 사랑의 햇빛을 쬐어다가 한발짝 앞
에 서서 오해와 불화의 구름이 자기들 생애의 사랑의 빛을
가리며 어둡게 하는 것을 봄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그뒤에
따라오는 어둠속에서 두 사람의 눈에 빛나던 사랑의 섬광은
빛을 잃어버리고 그 빛을 도모 찾으려 아무리 애를 써도 소
용없는 일인 것입니다.

결혼을 단순히 낭만적인 들뜬 생각에서나 자기 본위의 이
기적인 목적에서 즐거움을 구하려고 하며, 언제 일어날런지
모름 최초의 곤란이나 오해가 있을 때는 매정스럽게 갈라지
는 계약으로 보는 생각은 특히 이러한 부부간의 이혼으로 인
해 자녀들이 고통을받는 경우에는 응당 가혹한 벌을 받을 죄
악인 것입니다.

결혼은 뚜렷이 인식된 목적에서 무엇보다 먼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행하는 성스러운 관계입니다. 결혼에 대한 경
솔한 태도, "우애 결혼"의 부분별한 제안, 비열하고 극악한
"자유로운 성 실험"론 및 기존하는 이혼 재판소들은 가정이
라는 이름의 배들이 수없이 파산을 당하고 있는 위험한 압조
들인 것입니다.

가정의 파탄을 줄이기 위해 오늘날 저속한 결혼관으로 흐
르는 풍조가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높고 고상한 결혼
관에 의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같이 결혼을 성스
러운 의무로서 그리고 영원하며 또는 영원하게 맺어진 성약
으로서 생각합시다.

결혼에는 의무가 따르며 단순히 쾌락으로 끝나 버리는 계
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결혼의 책임과 이상을 가진
젊은 남녀들을 가르쳐십시오. 젊은이들에게 이성간의 순수
한 사람은 이 지상에 있는 가장 고귀한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것과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은 모든 인간들이 가진 최고의
의무라는 것을 가르쳐십시오. 이 점에서 보면 자녀들이 가
정생활의 신성함과 그와 관련된 책임의 성스러움을 보고 깨
달으며 말하자면 그 속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들
은 가정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혼의 부부가 제단으로 가까이 나가기 전 결혼이란
상호 봉사 상태이며 받기 뿐만 아니라 주기도 하는 상태이
며 남편과 아내는 각기 자기가 지닌 최고의 것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깨닫는다면 파탄을 가져오는 결혼의
수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해리엘 비쳐 스로우씨는 다음과
같이 현명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수고와 희생을 감당함에
마치 영웅답게 기꺼이 애초부터 인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남녀는 아무도 참다운 가정을 이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
로지 생을 이같이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늘에 가장 가까운 상
을 지상에서 이룰 수 있도록 이런 신성한 능력을 부여 받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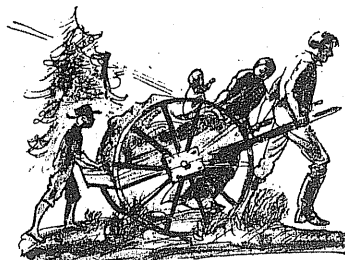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의 성약이 영속하도록 이바지하는 다른 상태는 신전
에서의 결혼입니다. 이와같은 신전 결혼을 거행하려면 제일
먼저 젊은 남녀는 감독의 주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한사람씩 감독과 접견을 해야하
며, 감독은 앞서 말한 모든 보호 규약들을 강조하며, 이제 젊
은이로서 그들이 맡게 될 결혼이 가져다 주는 의무의 성스러
움에 대해 한쌍의 남녀에게 가르쳐 줄 임무가 있습니다. 바
로 거기 신전 소유자의 편전에서 자기들 스스로 결혼의 의무
를 책임지기 전 젊은이들은 자기들 앞에 놓인 의무의 성스러
움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며 더욱이 그들은 거룩함과 순결한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자기들의 서약과 사랑
을 인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한 결혼 관계의 기초로서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것같은 그리고 교회의 창립 회원들 사이에 가르쳐져서
실천이 되는 순결의 표준인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도덕의 표준은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젊은 형제 중에는 젊은 자매보다 순결하지 못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독에게 찾아와 신
전의 제단으로 순결한 처녀를 데려갈 주전을 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 젊은 청년은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순결과 똑같은
순결을 당연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도 격심한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는 이 심각한 이혼 문
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안내
자인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는 결혼 관계는 신성한 근원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
해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이니라." (고성
49편 15절)고 선언하시고 극히 유별난 상태에서만은 결혼을
행해서는 아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가
르침 중에서 가정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최고의 중
요성을 띄고 있습니다. "부단한 결속을 향유하며 어떠한 불
평자에 의해서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빛이 차차도 희미해
지지도 않을 사랑을 가진 자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
다." 결혼의식이 거룩한 신권의 권능에 의해 인봉이 될 때
는 가족 관계가 지속되는 것같이 현세와 영원한 세상까지 지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짜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마가 10장 9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희들이 가정과 결혼 성약의 성
스러움을 보다 열심히, 기도에 찬 마음에서, 진실성을 갖고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대 생각을 늘 덕으로 장식하라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아들 로오렌스 맥케이 대독

신권을 소유하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들이 부름받은 이 위대한 일에 대한 저의 느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모임을 시작하는 지금 여러 지방으로 부터 모여든 이렇게 많은 신권 소유자를 보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나올 커다란 힘을 실감하는 저는 압도당하는 듯 합니다.

오늘 저녁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신권을 소유한 수천의 형제들로 인하여 행하여질, 그리고 또 행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의 가능성을 생각하니 제 가슴은 한없이 부풀고 있습니다.

"추수할 곳 너무 많고 일할 시간 짧지마는,
십자가 박히신 주위해 전심하여 일하리,
주님의 돌보심 의지하여 날 사랑하십 아오니,
성실한 맘으로 주 뜻 행하고 원하신대로 되오리,
산 넘어나 바다나 골은 길 어느 곳이나 주 원하면,
내 가리타 주께 대답하리니 주 뜻대로 되오리다."

(찬송가 109장)

오늘 저녁 이 찬송가 구절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지난날 보다는 앞으로 더 훌륭히 하겠다는 성스러운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결심과 함께 하여야 할 다섯가지의 기본적인 덕성이 생각납니다. 간단히 열거해 보면,

첫째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앙, 그의 아들에 대한 신앙, 그리고 우리 동료들에 대한 신앙입니다.

둘째는 정직입니다. 어린 아이 같은 성실성, 곧 정직은 우리 동료들이 서로를 대하는 기본 자세이며, 인격의 기초인 것입니다. 낮에는 여러분의 동료들 부정직하게 대하고는 밤에는 주께 기도를 드린다면 저는 마치 함릿에 나오는 임금처럼 그대의 말은 하늘로 날아오르나 그대 생각은 땅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직하게 대하였다면 주께서는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의 소리를 들어 주시고 그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충성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원리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충성스러운 법입니다. 신권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나 가정에 충성하고 친구들에게 충성하십시오.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에게 이 주의를 드립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여 여러분을 이기려할 때는 바로 여러분의 가장 약점을 이용하려 할 것이며, 만약 여러분이 주를 섬기려고 마음먹기 전에 그 약점을 스스로 내버려 둔다면 사탄은 그 약점을 더욱 약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약해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뻐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누가 4장 8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강해질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형제들 - 그들의 몇몇은 신권을 소유하였고 또 중요한 직책에서 일하는 - 이 그들의 약점 때문에 유혹을 받아 교회 안에서 상한 심정을 가진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주와 성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덕성과 분별심을 떠나 어리석은 방종과 그것에 굴복함으로 그들의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행복에 직결되는 한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성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이것이 얼마나 성스러운 성약인가를 잊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십이사도나, 교회 총관리 역원이나 스테이크 관리 역원으로 계신 형제들은 교회 젊은이들에게 신전에 가서 결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맺는 성약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신전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전 결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중의 하나입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신성한 속성인 사랑으로 한쌍의 부부는 그곳으로 인도됩니다. 젊은 남자는 정당하게 눈송이와 같이 순결한, 햇살과 같이 흠없는, 모든 처녀와 함께 모성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미래에 그의 자녀의 어머니가 될 신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에 신부의 웃을 입고 그녀가 가정을 지키는 머리가 되리라고 확신하는 젊은 장모의 마음에 한 자람이 되는 것이 여인에게에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어머니로서의 존재로 확신되는 것처럼 그녀도 그를 아버지 될 자격이 있는 존재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며 또 사실 그의 어깨 위에 걸친 신권의 성의로서 정당하게 그의 젊은 신부에게, 또 주위의 모두에게 그의 합당함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집 안에서 그들은 주님 앞에 같이 서서 그날에 맺은 서토가 서토에게 충실하며 결코 다른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겠다는 성약에 충실할 것을 주님앞에 증거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중 가장 높은 결혼에 대한 이상입니다. 만약 이와같은 성약들이 마치 성스러운 성약이 지켜져야 하는 것처럼 성스럽게 지켜진다면 아내나 남편들 중에 상한 심정을 갖게 되는 자가 적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신전에서 결혼한 형제는 젊은 자매들, 그들이 합창단원 속에 있거나 상

호부조직에 있거나 본부 임원회의 임원이거나 또 교회의 다른 직책을 맡고 있거나 간에, 그들을 자세히 살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에게 충실하도록 성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그것을 충실히 지키고, 또 그것에 충실하십시오.

저는 오늘 저녁 이 모임에 참석하신 신권의 우리들에게 주의 집에서 맺은 성약을 충실히 지키는 것을 간절히 역설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돌보지 않고, 매일 생활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그리고 교회의 일을 하면서 자주 같이 있게 되므로 더욱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의 동반자를 찾아갈 권리를 여러분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눈물 가득한 어느 아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그녀의 란원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그녀는 "당신은 기도를 해 주시지 않으렵니까? 바로 저의 남편을 제게 돌아오게 하는 기도를 말입니다." 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불행은 그녀의 책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녀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 그러나 나는 그것이 그녀의 남편의 잘못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신권을 소유한 자이며, 그의 성약을 깨뜨릴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돕는 사람에게는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생애의 가장 큰 투쟁은 조용한 인간 영혼의 잠막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신권을 소유한 권애하는 형제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것은, 의심없이 행해왔던 일들을 계속하며 앉아서 여러분 자신을 조용히 복상하여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내부에서는 매일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싸워 이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첫째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할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불행을 가져다 줄 사람과 조건들이 여러분의 생활에 스며들지 않도록 이를 피하십시오. 둘째도 여러분들이 정원회에서 의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십시오. 정원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하려고 결정한 후에 그 일을 행할만큼 충분한 힘이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셋째도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조용한 순간에 결정하십시오. "생애의 가장 큰 투쟁은 조용한 인간 영혼의 잠막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어디 있는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으시라도 다음의 말을 꼭우명으로 늘 기억하십시오: "그대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대의 말은 바를 잘 하라." 물론 이 말은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적용되는 말이며, 해롭고 악랄한 행동에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제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여러분 중의 몇몇에게는 말씀드릴 적이 있습니다만 오래 전에 피터 지. 존스톤과 제가 스톡트랜드의 스테어링 성 주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제가 막 선교사 일을 시작할 때여서인지, 몹시 의기 저상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소책자를 돌리는

데 몹시 냉대를 받았었습니다. 저는 그만 집생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임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스테어링 성의 주위를 우리는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내로 들어 가려다가 반쯤 지어진 한 건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옆길에서 그 건물의 정문 상인방들에 무슨 글이 새겨진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존스톤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에 가서 무엇이 쓰여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곳에 이르는 좁은 길을 밟도 못 올라가서 나에게 비친 그 글자들이 나의 마음을 새차게 쳤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대의 말은 바를 잘 하라."

제가 다시 저의 동반자에게도 돌아와서 그에게 그 글을 보고 맨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바로 졸업한 유타 대학의 관리인을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받던 어떤 교수들 못지 않은 존경심을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말은 일을 잘 해내었습니다. 그가 저희들이 축구 유니폼을 입을 때 그들이 주던일, 우리들의 학과목 몇몇을 도와 주던일 — 그도 역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 을 저는 지금 회상합니다. 겸손하게 오늘날 까지 저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떠한 지위에서나 하나님을 대표할 신성한 권능을 여러분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동역자들과의 권교를 즐기는 것은 이제 저의 본성이 되다싶이 했습니다. 제가 나이들수록 주 안에서 형제애를 더욱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오늘 저녁은 그런 생각이 어느 때보다도 깊고 진지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어진 지시사항이나 보고서에 더하여 그의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려는 더욱 큰 결심을 갖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빕니다. 의로운 생활 안에서 서모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우리 이웃이나 그리고 교회의 각 지역, 스테이트 및 총 관리 역원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는 큰 결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중상하는 말이나 헐뜯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악한 말은 그 대상보다 말하는 자가 더욱 해를 받게 마련입니다.

미국의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 자유를 우리들도 부러워가려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을 주님께서 좌절시키도록 주께 기도합시다.

제가 3년전 신권회 모임에서 행했던 공산주의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몇마디 이야기 해 두고 싶습니다. 그 신권회 대회에서 저는 우리의 헌법을 연구하도록 격려하고, 그것을 조금씩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에 대해 경고하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 회원들의 정치적인 견해와 그에 충성할 권리

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가능한 한 엄격히 증립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실로 이 목적을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현명한 자의 손을 빌어"(고성 101편 80절) 제정되었음을 주께서 성임하시, 그리고 이 원리에 따라서 커럽트 신전을 헌납하시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영원토록 확립되어지도록"(고성 109편 54절) 기도 드렸던 우리의 헌법의 보호 아래서 우리 회원이 완전하고 자유스러운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해할 의도는 없습니다. 교회는 미국의 근본 방질과 주 및 연방 헌법 아래의 정부의 수립 그리고 이 헌법 아래 보장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우리의 신념에 끝까지 헌신하기를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결코 변경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야말로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병행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파하는데 대한 사탄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간주합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6월호 1966년. 477페이지)

공산주의의 위험성에 대하여 회원들이 스스로 배움에 있어서 회원들은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이 그들에게 가담하거나 그들에게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의 명이나 지위로 그들의 입을 지지하기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그들은 엄격한 증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를 알기 위한 어떠한 조직적인 움직임도 교회의 회원을 분열시키지도 모트는 그런 방법으로 어떤 지역에서든지, 교회의 회원에게 그들의 사상을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이나 다른 직책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러한 운동을 교회의 다른 회원이 하도록 하려고 그들 구획의 노력을 지지하는데 앞장서는 안됩니다.

우리들의 자유스러운 사회를 침식하려는 사회적, 교육적, 공산주의적 그리고 다른 정치적 세력에 대해 잘 알고 또 경계해야 한다는 것은 온 국민 각자의 권리이며 의무이기 때문에 교회 회원도 마찬가지로의 권리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현안 문제에 대하여 여러가지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 국가에서 이 교회도 개종한다는 사실을 저는 잠시도 있을 수 없으며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서 우리들의 임무는 바로 모든 나라에서 온 우리의 회원들에게 그들이 어떤 호칭으로 왔든지간에 모든 거짓 사상들로부터 자신들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능동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멜키세데 신권회 연구 과정에는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연구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과목과 함께 자유에 대한 것, 종교와 국가, 공산주의의 위험과 같은 과목을 공과 내용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 공과를 연구하게 되면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도 하여금 주님이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세운 구원의 계획뿐만 아니라 의에 대처하는 힘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욱 잘 알게 할 것입니다.

사회적 변동과 혼란이 심한 오늘날, 신권을 소유한 회원과 지도자들은 바울 사도의 다음과 같은 현명한 충고들을 늘 기억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때

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전 2장 1-2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을 도울 뿐 아니라 진리안에 살고 우리 가정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를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부모되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영향력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려 합니까?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분을 그토록 기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진실함을 끝까지 필요하다면 죽음에 이르기 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강화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두분께서는 이 경륜의 시대에 나타내 보이셨으며 그의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결코 다시 좌절되거나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아직도 제 뜻대로 하려하며 오늘날 그의 사자들은 수세기감이나 행사하지 못한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악한 그런 심하고 이데오로기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와같은 세력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을 특권이 있는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진실하시고, 또 충성하십시오. 가정에 진실하시고 가족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십시오. 그들을 인도하도록 독단적으로 하지 말며, 아버지로서 친절히 모범을 보임으로써 하십시오. 그렇게 가정과 생활에서 당신의 신권을 행사 하므로써 교회가 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십시오.

이제 마치려 함에 저는 제가 늘 근에서 복무하는 여러 형제들의 희생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유혹을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빌며 그리하여 그들의 모범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산 간증이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새 소식을 받아들일 자를 매일 찾아 다니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기 빕니다. 그들이 악한 세력을 대적하여 이겨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진정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사업을 하여 나감에 주의 축복이 늘 같이 하기를 빌며, 이 사업이 주님의 신성한 목적을 다 이루도록 확장될때 까지 계속되기를 빕니다.

저는 이 위대한 사업의 진실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용기 있는 젊은이와 진실한 남성을 요구하는 시대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아들 로버트 알. 맥케이 대독

사람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눈부시게 발전한 교회 연합 대회들을 폐락해야 될 시간이 닥아올 때 저의 영혼은 지난 삼십 동안 개혁된 여러 모임에 스며들은 훌륭한 영과 열매에 대해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특권에 찬양없는 감사로 넘치고 있습니다.

저는 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빨리 이곳에 나오셨거나 혹은 태에서 결정을 하셨거나 그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훌륭한 남성이 되고, 여성이 되고 또한 자기가 속한 도시나 국가나 민족의 보다 선량한 시민이 되어야겠다는 강렬한 욕망과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 대회들 좌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의 보다 훌륭한 삶에 이바지 하려는 부끄러운 책임감 없이는 이 대회들 떠날 수 없습니다. 개개인으로서 우리는 보다 더 고상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품격없는 생각이나 저속한 소원을 고무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우리들이 행한다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을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상한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드높은 소원을 고무하고 품어 본다면 사람들을 만날 때 특히 우리와 함께 사귀는 시간에 그 행동에 대한 발산이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기의 헌존하는 바를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발산의 수혜자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이 사실을 의식하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어느 개인의 삶으로 나올 때는 언제나 불미한 과거를 가진 사마리아 여인으로 그래서 돌로 칠을 당해야 했던 여인이었던가 아니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돌로 쳐야 하는 남자였던가 또는 니고데모 같이 유대 권원이었던가 아니면 허구 많은 문명병자 중 한 사람이었던지 그런 발산을 인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찌기 한 개인에게서 나오는 발산을 의식하셨으며 어느 정도는 여러분도 그것을 의식하고 계시며 저도 그러합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바이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발산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에게서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그럴습니다. 우리 가정들은 현재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바를 발산하는 것이며 그 발산은 우리가 가정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 내에 어떠한 죄원도 어떠한 남편이나 아버지도 자기 가정에서 욕설을 마구 한다든지 또는 자기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은당치 못한 말을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임을 받고 책임을 지되다 하여 여러분은 신권을 소유한 남

자로서 그같은 행동을 할 수 없으며 그러면 여러분 내부의 영에도 진실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욕과 조급한 성미를 절제하며 여러분이 하는 말씨를 살피시는 인격으로 이상적인 가정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그러한 일들이 오늘의 여러분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웃에게 발산하게 될 것을 염성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고음을 쥐는 다 하더라도 화평과 조화를 낼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남성다움에 진실한 남자는 진리에 반대하는 거짓말은 안할 것입니다. 인간 개개인에게는 그 내부에 신성한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신성함에 진실하려는 남자는 자기의 주님께 진실하며 자기 동료들에게 진실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불충실한 남자는 흔들거리는 사람이며 무기력 하며 허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다가 너무 멀리까지 가버리게 되는 날엔 빛을 등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게 될 것이니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화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복음을 가져 모든 악덕과 죄에 맞서 버리고 있는 중에 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간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이 대업을 저버릴 수 있을까요, 또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기 보다는 입에 바른 구두선함을 행하기 원하는 고로 이 대업을 저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에 진실하며 건디고 있을 것이며 우리들 내부에 잠재하는 신성한 바에 진실하며 우리가 받은 바 진리에 대해서 진실을 다하며 버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젊은 남녀들을 꼬여 내어 비참과 절망의 어둠속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악한 환경을 우리 주위에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음을 깨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려 애쓰는 사람들 집단 속으로 내던져 졌을 때 우리는 다 함께 죽음에 대해 진실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이원적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이라 믿어야 하는 식욕, 정욕, 욕망을 동물들이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소유하고 있는 반면 또한 영적 존재이어서 동물적 본능을 자제하여 굴복시키는 것은 영적 영역에서 승진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단지 육체적 욕망과 정욕에 항복하여 영의 실제성을 전혀 부인하면 동물세계에 속한 것이라 말하여 지나칠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며 그의 실제 생명은 자기 안에 거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그의 내부에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고귀하게 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그를 고귀하게 되도록 동경하게 하고 소원을 품게 하는

것을 소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품격 격하가 아닌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이 대희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여 온 모든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진실되면서 있었던 남성들이었는데 즉 베드로, 야고보, 바울, 그리고 고대 사도들이던 그들 형제들과 또한 다른 형제들 같은 남성들입니다. 뉴욕주 팔마이라에 있던 종교적 지도자들이 젊은 요셉 스미스가 신성한 숲 속에서 목격하고 들은 사실 때, 문에 그 형제들을 돌리고 돌아섰을 때 그들은 가슴속에 주에 수님에 대한 감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스미스 2장 25절)

요셉 스미스는 최후까지 자신의 감증에 진실하셨습니다. 그분은 순교하기 위하여 일리노이주 카레지토 가시며 자기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내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대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든지 얼얼한 만치도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교회 정사, 제6권 555페이지) 그분은 자기의 감증에 대하여나 자기의 남성다움에 대하여 진실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성한 남성다움을 간직하고 계셨던 남자였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참된 회원이 따당히 진리를 방어하는데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남성다움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그와 똑같은 진리에 영감을 받게 하는 우리가 받은 부름에서 봉사할 때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남성다움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와 세계 역사를 보아 이같이 급박한 중대 시기에 현존하는 과오와 악을 투쟁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이상을 지속시키는 용기는 우리가 남성다움과 활동을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임정을 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오늘날은 남성들이 우리의 현대병에 만능약처럼 등장한 정제도 모를 광당한 학설로 그들의 정박지로부터 뿔뿔이 가지 아니하고 덤비지 않으며 침착을 지켜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시대는 도덕적 표준을 높이 받드는 용기있는 젊은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에서 우리는 가장 참된 용기를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은 비록 우리들이 매일 이러한 분들에게 대한 독서를 하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천재력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역시 가정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바 평생의 정력을 기울여야 하는 젊은이들의 인격을 파멸시킬 일들을 대항하여 두려움 하나 없이 그감히 일어서서 꾸짖을 수 있는 젊은 남녀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영웅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비틀리고 미혹된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가진 멧세지는 무엇인가! 교회는 만민에 대해서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학식 있는 자들과 배움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한결같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가장 높으신 통치자이시라는 것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아버지 되심을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나 사람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자녀들

지금까지 낮은 자 한 사람까지라도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고 만민에게 봉사와 영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저하게 사회적 종교입니다. 인간들을 제상에서 데려 가는 대신에 교회 신권 점원회들과 보조조직들을 통하여 교회는 사회 안에서 하나님같이 완전하신 인간들도 발전시키려 하며, 그런 기구들을 통하여 제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민의 주 되시는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원리 중에는 인류의 성장, 발전, 행복에 적용할 수 없는 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하나 하나야 말로 참다운 삶의 철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중심을 다해 그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분의 가르침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므로서 무한히 기쁨을 얻습니다. 회복된 교회의 모든 부름은 인간 가족의 복지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세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덕적 영적 가치를 용감하게 지속하도록 호소하는 바입니다. 세계는 도덕적 영웅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세에서 지어지는 무수한 발견들이 아니고 도덕적 영적 가치의 실제성을 믿는 신념인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마태 16장 26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지막으로 받드시 있어야 하는 진리의 나팔임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실존하고 계시다고 참되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하면 우리들은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나 현대 문명의 파멸에 대해서 근심을 덜할 것이거늘 이유인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들 결코 다른 백성들에게 내던져 버리지도 않으며 넘겨가지 않도록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께와 서로 서로에게 진실하는 고로 우리들은 종국에 불릴 진리의 나팔에 대해서 너무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젊은 남녀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 감증을 꼭 간직하고 있다면 마치 총알이 들어 갈 수도 화살이 꺾을 수도 없는 마술 옷 같은 갑옷을 입은 듯 대담하게 비방, 거짓 진술, 욕설의 어두운 계곡을 지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인의 시선을 받고도 겁없이 담대히 머리를 높이 치켜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한 피가 육체의 건강을 기쁨과 영광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의 몸속에 흐를 때에 여러분 전신에 물결치듯 일어나는 더욱 크게 확장된 건강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흡사 흑암이 구름 속을 뚫고 나타나는 태양 앞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바로 종국으로 닦아 오고 있으며 받드시 고야 말며, 모두가 밝고 큰 진리의 빛 앞으로 피신해야 함을 알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안내자, 동반자, 동맹자 또한 영감으로서 진리와 더불어 우리는 무한히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같은 혈육을 의식하고 아파할 것이며 이 생애의 모든 사소한 시험과 슬픔과 고통은 마치 꿈속에 보이는 잠시 나타났다가 아무런 해도 주지 않으며 없어지는 시험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일

니다.

우리가 다같이 십자가에 달리신채 돌아 가신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음을 기념하고 있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부활을 사실상 일어났던 일 뿐으로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하셔야 하는 성스러운 사명의 완성이로 받아들인다는 간증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삼으시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스스로 가장 잘 준비한 처소를 내세워서 위하여 살게 되리라고 저의 영혼을 다하여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유년 시절 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격체이시며 참으로 우리들이 기도를 드리며 접근하여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진리를 소중하게 품어 왔습니다. 저는 또 하나님께서 신앙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지식은 가장 아름답고 값진 생애의 경험들 중 하나로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의 짐작처럼 직접으로든 때로는 바라는 방법으로 오지 않지만 그 기도에 응답은 간접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저는 제가 드리는 간증이 응답되었다는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확신을 받은 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유별히도 그 응답은 꼭 하늘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제 곁에 계시어 말씀하시듯 선명하게 주어진 기도 하였읍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 존재의 한 부분이 되고 있으며 기억과 지성이 계속하는 한 반드시 오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온 세상의 구세주께서 꼭 실체처럼 저와 밀접하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한번도 느껴본 일이 없는 것같이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 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분은 만져 볼 수 없도록 영체가 없으신 권능으로 세상에 있는 도덕적인 세력이 아니라 창조력을 가지신 인격체의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통치자시고 우리들 영혼의 지휘자이십니다.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히 교회의 젊은이들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느끼고 여러 대중 앞에서 보다 은밀한 중에 매일 그분 가까이로 접근하여 나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만약 우리 백성들이 이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날엔 커다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행하여 주신 일에 대해 감사함이 넘칠 것이며 부여받은 은총으로 풍성한 자신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가까이로 접근하여 나가서 그분으로부터 빛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나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 밝아지며,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영에 의해 떨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공적 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대회 전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교회 종관리 역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들

은 회복된 복음의 진리에 관해 증거 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일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과 복음은 완전하게 지상에 다시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하였읍니다.

저희들은 온 세상 곳곳에서 제각기 말은바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들과 선교부장단들에게 정중한 인사와 축복을 보내 드립니다. 저희들은 마음 깊이 저들이 바치는 이 기심없는 봉사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조국을 위해 봉사를 바치는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에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정중한 인사와 자신과 신뢰의 메시지를 보내드리며,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는 여러분 스스로 도덕적 순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군인이나 선원이 된다고 해서 저속한 것이나 무질제나 부도덕에 탐닉하는 방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이 가진 잔인성이 원인이 되어 이러한 행동을 식지로 하게 될지 모르나 그렇지만 여러분은 교회 회원으로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자들로서 아무 형법없이 무사하게 그같이 탐닉하여 방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귀중한 생애를 위해서나 여러분을 신임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세상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셔야 마땅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보살피는 보호하심과 성스러운 안내가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또한 저와 함께 일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권능으로 저는 이 시간 이후 부터 이전 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 더욱 충실하며 더욱 섬공적으로 여러분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려는 참신한 결심을 가지고 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드리며 기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가슴속은 여러분이 바치는 봉사와 이 대회에 출석하여 주심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며 이 위대한 대일에 종사하는 특권을 가진 것을 감사하는 심경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 충성을 다하여 받들어 주시며 기도드려 주심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자제력과 자기 완성을 거저 이 획득하여 삶은 세상과 이세상 유혹을 초월하여 영으로 살아가게 하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이것이야 말로 현재와 내세를 이어 있는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나, 여러분의 교회 활동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잃어버리는 모든 영혼에게 부여되는 위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저는 여러분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만인을 위한 복음

휴 비. 브라운

대관장단 제 1 보좌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기록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이같은 특성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찬성하든 안하든 제가 확신하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도 우리들이 특유한 사람 곧 냉혹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대개가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특이한 사람이라고 뜻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짧은 시간동안 의도하는 목적은 그러한 특이점 몇가지를 조사하고 논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국민들 간이나 국가간에 존재하는 적개심들의 약간은 그들 상호간에 이해심이 없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해하지 못했노라."는 시를 읊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마한 감동만을 즐키니,
세월이 흐름을 따라 그것들을 껴안아서
이 따금씩 덕은 죄악같이 보일 때까지,
이것으로 사람은 흥망하고 살고 죽으니,
모두는 이해하지 못했노라.

"오 하나님이지여! 인간들이 조금만 더
분명히 보게 하옵소서,
아니면 저들이 볼 수 없거든
냉혹한 판단이란 알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람들이 조금만 더
서로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저들이 당심께 더 가까이 나서게 하옵소서 ...
그래서 모두는 이해하도록.

(토마스 브랜튼 지음, 열감의 시, 합시이온 하우스 출판사, 1928년 판, 188페이지)

우리들은 잠시 두 옷머리 앞이 붙은 주제인 즉,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인간이 서로 형제됨을 논의해도 좋습니다. 경전은 우리들에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관해서 우리는 고대의 다윗과 같이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하고 의문을 달아 봅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무엇인가?"라고 적합한 질문을 해 봅니다.

제임스 이. 탈메지 박사는 우리 주제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요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무한히 망막하며 송고하며 장엄한 배경속에 존재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사실상 그러하지만 인간은 우주에 있는 모든 유성과 항성에 비해 훨씬 위

대하고 장엄하며 하나님의 헤아림 속에서는 더욱 소중하며 값진 것이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 모두는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입니다. 인간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이 중 몇가지를 다스릴 지배권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들에 뛰어나 책고의 자리를 성취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여 주며 공창은 그분의 솜씨를 나타내 보입니다. 지구와 우주의 물리적 창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만치 장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 모두는 하나의 목적에 이르는 수단으로서 존재하여 왔으며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바 보라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라고 선언하신 구상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 주제를 하나님에 관하여 간략히 논의하며 그같은 주제와 관련해서 믿고 가르쳐진 것들을 얼마만 검토하여도 좋겠습니다.

19세기 초엽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음을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어 사랑과 미움은 두말 할 여지 없이 감정이란 사실마저 무시하고 하나님은 육체도 가지지 않으시고 지체나 사랑도 없으신 무형체시고 비물질적 존재시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성스러운 경전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가르치는데도 하나님은 형태가 없으시다고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버지 형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형체없는 실체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추상적 가공인물은 아닙니다. 그분은 권능도 형이상학적 원리도, 비인격체인 세력이나 권능도 아닙니다. 그분은 형체를 가지고 실지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실혹 우리들 인간이 연약하여 그분의 존재에 관하여 총괄적인 심비함을 알아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그분이 우리와 아주 가깝고 같은 혈육임을 알고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성품을 통하여 나타내셨고, 사실상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연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에 자기 스스로 그 형상을 내버리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계시며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여진 인간의 특성을 소지하고 계십니다. 성스러운 경전을 통털어 볼 때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 이시며, 구별되시는 인격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의식, 의지, 사랑, 자박, 정의와 같은 특성을 소유하고 계시다고 주장하는 고대 경전과 모든 선지자들의 교리를 다시 단언하며 확실히 해 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분은 승영 하셨으며, 완전하시고 영 확롭게 되신 존재 이십니다.

고브리감 에이취. 토버트 부대감장님께서 최근에 쓰신 기록 가운데서 제가 더 널리 알려지기 바라는 복음의 원리들을 약간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의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해설하려 합니다.

인간이나 어느 종과 교리의 영감받지 못한 가르침을 죽어야 할 몸의 이전 상태인 전세와 죽어야 할 몸의 현세와 죽은 이후의 상태가 있는 인간에게 적용할 때에 인간의 육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반하여 순전히 인간은 그 기원이 흙에서 왔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창조를 일기 이전에는 모든 인간들은 예지로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지들은 창조되거나 지음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영이라고도 부르고 영혼이라고도 부르는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예지적 실체는 자존하는 실체로서 창조되지도 않았으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신성하고 영원한 속성이 되는 존엄성을 입은 영 확로운 존재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또는 오히려 좋아하신다면 물론 교회)는 계시의 반석위에 세워진 뚜렷하고도 예언적이며 영감받은 교회임을 주장합니다. 교회는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언하신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분과 협력할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협력이며 모든 사람에게 이용할 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형제됨"이란 어휘가 지닌 의미를 부언해 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의 철학이 아니며 전세와 현세와 내세의 삶에 관한 신성한 계획이며 정사진인 것입니다.

복음은 지속성있는 교육제도로서 영원한 진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육이란 실로 우리 종교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교성 88편 77절) 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같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현재 어떠한 교통이 있겠는가 혹은 이전부터 있어 왔는가? 만약 과거에 그랬다면 현재는 왜 없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계시에 관한 질문을 가져 줍니다.

19세기 초엽 천사들이 지구를 방문하여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려 준다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예언자라 불리우는 특정한 인물들이 인간들과 함께 살고 있던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시대가 있긴 하였으나 진실에 의하면 이 모든 계시는 그쳐버렸다 하는 관념이 그 당시 전 기독교 교회의 거의 지배적으로 유포되었던 것입니다.

계속적인 계시가 있다는 신념이 과거에 널리 일반으로 용인되어 온 것 같으나 정음 기독교는 현재 계시가 있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세상을 떠나 가시고 사도들이 전부 돌아가신 이래 아무 계시도 주어지지 아니 하였으며 더구나 미래에 전연 계시가 없을 것이며 점점의 관수는 완성되어 영원히 끝맺어 졌으며 도무지 천사도 없고 하늘의 열림도 없으며 하나님을 대변할 권능받은 자도 전혀 없다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전부는 끝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전을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예를들면 우리들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마씨 사람이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같이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을 삼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6절에서 주님께서서는 이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우리는 이 교회가 몸소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으로 부터 영감을 받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체로 우리들이 예언자에 관해 말할 때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분은 미래일을 예언하시는 분이시고 장차 일어날일에 대해 내다 보며 예고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그것은 얼마쯤 예언자의 직분이며 일부분 그것은 바로 그분한테서 기대되는 바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원래 인간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며 하나님 일의 해설자가 됩니다. 예언자는 전능하신 이의 영감으로 깨달음을 받아야 하며 깨침이 있을 때에는 자기 시대 사람에게와 후 세대에 그것을 두려움 없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게 도와줄 수 있는 선견자이시며 백성들을 가르치고 시대를 교화시키도록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교사이심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예언자의 근본 직분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삼아 우리들은 야담의 시대로 부터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던 날까지 복음의 모든 경륜의 시대에 걸쳐서 하늘에서 계시를 받음은 보편적인 것이었음을 단호히 주장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시대의 처음 일세기가 시작한 이후 배도도 인해 한동안 계시가 분명히 중단되었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창설자는 하나님에게서 유대하며 압도하는 위력을 지닌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사실상 그는 그 분들의 방문으로 아버지와의 아들을 목격하였음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하늘에게서 다른 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내부 속에는 생동력있고, 지배적인, 특징되는 본질이 또는 그 자신이 되는 영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은 둔탁한 증명하는 사소하든가, 우람하든가, 순수하든 더럽든,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며 소리로는 들리며 각 개인과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어떤 이는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간들과 천사들 중에서 소수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미리 예정하셨으나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은 저들이 행함이 윤통하였거나 잘못되었거나 또는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바가 좋고 나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확정된다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성입되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불가항력의 은혜로서 모두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며 그분께서 정죄받아 마땅하다 여정할 자들은 피하지 못하며 완강히 지속성있게 버티고 투쟁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기도도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으며 역악한 순종의 행동도 그들의 형벌을 경감할 수 없고 무뎠 의를 바라는 금주림과 목마름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은혜토록 축복을 가져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또한 영원토록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속에 멸망하는 자들은 예를 들면 이교도 민족들은 정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의 칙례를 받지않고 유년시절에 죽은 어린아이들은 영원히 정죄받았다고 가르쳤습니다. 혹자들은 칙례받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거룩하게된 땅에 묻는 것을 관습하지 않았습다. "지옥의 부딪" 이 어떤 교지에서는 현실적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하나 애매모호하지 않고 가장 분명한 어조로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키므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은 계시받은 영원한 진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는 함께 구원과 정죄의 두 어휘가 지닌 중대한 의미를 고찰하기로 합시다. 초기에도 그랬지만 다소는 오늘날도 이 두 어휘는 하늘에 관한 학식이든가 지옥에 대한 일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고 있다는데 전자인 하늘에 관한 학식으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난 어떤 초소에서 누릴 수 있는 실비스럽고 무한한 상태라 말하며 후자는 많은 자들이 갈망하는 결핍된 범민과 영원한 비참의 곳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만약 어느 사람이 초고만 정도라도 하늘에 관한 지식을 얻으면 천사들과 성도들 중 가장 거룩한 자들과 함께 누리는 천상의 모든 황홀한 경지를 완전히 소유하는 상태에 들어가며 그렇지 않고 만일 조금만치라도 영으로 이탈된다면 가장 사악한 자들과 복도로 비천하게 되버릴 악마들과 함께 하며 전덕야 하고 전혀 구원이 없는 영원한 고통에 빠지는 운명이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하늘에 관한 학식과 지옥에 대한 일에 있어서 전자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의 동등함과 후자에서 말하는 균일하게 주어지는 영광의 출입함에 관한 역설에 동의하지 않으며 우리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후세의 삶을 누릴 모든 인간들을 위해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진 존재의 상태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주장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회복된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각기 사람들은 어느 범위에서 자기가 지닌 천성, 기질, 예지의 정도에 따라 알맞게 거하게 될 하나 이상의 여러 영광의 왕국들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해의 영광도 있으며 달과 별의 영광도 있으며 그런즉 이 생을 마친 내세에서는 인간들이 여러 다른 등급의 왕국에서 살게 되리라는 것이며 하늘 법들의 공재가 무한히 서로 다른것 같이 미태의 인간들 역시 그들이 지닌 예지, 지식, 취미, 예능, 경향 또한 소원들이 갖가지로 다른 대로 무한히 흐리는 서로 다른 처소와 상태에서 살게 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복음 10장을 삼고하면 우리는 "네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 복음, 10. 27.) 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의 일부분이며 출판물에서든 설교단에서든 들 중 어디에서도 나타나게 자주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필연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오지만 그분이 가르치신 지시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안은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그가 가진 예지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내부의 정신적 범위 내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자신이 연구심 있게 열심을 다하면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자기의 최고 높은 고상한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 활동은 성장을 계속하는고로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 계속적인 범위를 가져 오게 합니다. 일단 뜻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파악한뒤는 불같이 타오르고 빛나기 시작하며 동쪽되고 발산하려할 것이며 승배하고 본을 뜨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인간의 뜻에 의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할 때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밝혀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섬스러운 모든 계명에 비하여 가장 지고한 위치에 놓아 두셨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교회 회원들은 복음의 원리들과 이 원리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가장 지고한 것이라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복음이 베푸는 구원의 의식들을 받아들여서 완전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지식에 대한 영원한 탐구입니다. 사람은 무지하고서는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의 철학 이상이며 전세의 죽어야 할 몸의 현세와 이 생을 마친내세에 까지 이어 있는 삶에 관한 신성한 계획이며 침사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시로 주어진 도전적인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앎을 힘써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할 것을 만민에게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감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멸망하여 사라져 버리는 남아빠진 현세에 속한 것이 아니며 복음은 우리가 사는 이 생에서 실질적인 세력을 미치는 힘 즉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의 생애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는 힘이라고 선언합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방법으로도든 특유한 백성들이며 특이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들인 어느 다른 백성들 보다 웅등하게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특이점들을 가져 있고 어려움들을 가졌으며 또한 죽어야할 몸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에 대한 멧세지들은 세상 사람들이 천해 들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범위한 영역에 퍼진 선교사 제도들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그 멧세지가 진실함을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제 자신의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구세주의 부활에 대한 증거

엔. 엘돈 태너

대관장단 제 2 보좌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와 그의 총관리 역원들을 대신해서 저는 이 사랑스런 부활절 아침 신전 광장의 역사적 태버나클에 참석한 여기 저희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각 가정에 계시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따뜻한 환영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죽어야 할 몸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발생한 가장 경이롭고 위대한 사건인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지상에 오셔서 저희들 인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다는 사실은 모든 인류가 무덤을 열고 일어나리라는 부활을 확실히 보증하였으며 저들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에게도 도토 돌아갈 기회를 열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담과 이브의 모든 자녀들은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 나게 되었으며 장차는 각각 자기가 준비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의 탄생, 생애, 돌아가심과 부활에 대한 그분의 메세지는 모든 경전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이나 또한 우리 말일의 경전인 불문경, 교리와 성약, 그리고 값진 진주의 중심적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전속에 이 메세지가 들어 있지 않다면 경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모든 다른 것들은 그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의미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종교의 근본 원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감사제례를 일으키고 죽으신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며 드린 간증들이며 우리 종교에 관계되는 그외 모든 것들은 다만 그 간증에 예속되었습니다." (교회 정사, 제3권, 30페이지.)

사실상 구속주의 이 위대한 메세지 없이는 우리는 목적도, 희망도 없는 채 내버려져 있을 것입니다.

은 세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근원이신 우리 구세주의 십자가에 못박히고 돌아가심 일과 부활하신 일을 기념하고 있는 때에 저는 가장 중대한 이 행사를 둘러싼 몇몇 예언과 사건들을 고찰하고 싶습니다.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수 세기 전에 시편작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습니다:

"...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수족을 찢었나이다.

"내 걸음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뱉나이다." (시편 22:16, 18.)

또한 수세기 전 선지자 이사야는 "...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방에 이르게 하며 ...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12.)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오래 전 선지자 엘마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의도한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모든 죽음에서 일어나 주앞에 불려나와 저마다 행한 행위대로 심판받으리라고 앰울레크가 이야기 한, 죽은 자의 부활이란 도대체 무엇이오니까?" (엘마서 12:8.)

선지자 엘마가 이 질문에 따라 행한 그의 설교에서 설명하여 이르기를 "... 첫째 부활이라 함은 영과 육신이 재결합 됨을 뜻하는 것이니라" (엘마서 40:18.)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도하고 다니며 억력 법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때를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마태, 마가누가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두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삼십이년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51.)

또 기록하기를 "...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지 삼일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언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 하더라." (마가복음 9:31-32.) 고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간에 그리스도 자신은 분명히 자기 사명의 목적과 장래에 일어날 일을 이해하고 계셨으며 그 때가 점차로 가까워 오며 그분은 극히 관심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가 자신을 압박하여 음을 느끼셨을 때 아버지께 기도도 간구하여 이르시기를,

"...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도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요한복음 12:27-28.) 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함께 유월절에 그리스도께서 그 열두 제자들과 같이 계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눈에 그려 보기도 합시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열 둘 중 하나 곧 나와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마가복음, 14:18-20.)

이 일이 있은뒤 저들이 감람산으로 나가 셋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곳에 남겨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셨을 때에, "말씀하

시되, 네 마음이 심히 고뇌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급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수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마사대, ...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관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34-26.)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도무지 알아채지 못하는 사도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에게 돌아왔을 때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두 세번째나 남아 있게 하고 똑 같은 말로 기도드린 다음에 그들에게 돌아와 볼 때마다 저들이 다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번째로 제자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라 : ... 때가 왔다..." (마가복음 14:41.) 라고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그분은 의모음을 느끼셨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 이내 우리들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그분을 파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 갔으며 그곳에서 자기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없으나 그 증거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대답하여 이르셨을 때, 저들은 그분을 비웃고, 그분에게 킁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말하되 신지자 노릇을 하라 하였습니다. "...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였고." (마가복음 14:64.)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공회에서 사형의 형벌을 내릴 수 없자 예수님께서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 가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고 나서 말하기를, "내가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누가복음 23:4.) 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에 우리들은 다시 소리질러 요구하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았는지라 헤롯에게 보냈으나 그는 어떠한 심판을 내릴 줄몰라 도로 예수님을 돌려 보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심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적어도 세 번씩이나 그는 우리들에게 탄원하여 말하기를 살인죄를 범한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놓아 주려 하였으나 그 때마다 저들은 "...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라고 말했으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물으러 우리들은 큰 소리로 재촉하며 말하되, "그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8, 21.)

결국은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다음과 같이 행했던 일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러하여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담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태복음 27:24-25.)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우리들에게 넘겨졌을 때에 그분은 재죄를 당하셨으며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

던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중에 계시면서 하나님 같은 태도로 간구하여 이르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 그와 함께 하던 도둑중 하나가 자비를 베풀기를 간청하여 구하매 다음과 같이 심히 증대한 뜻을 담은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43.)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렇게 여쭙어 말하셨습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 나리라한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되, 너희에게 파숫군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마태복음 27:63-65.)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도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가셨다는 사실을 실감하고서 얼마나 마음은 무거웠겠으며, 실망과 킁음은 또 어떠 하였는가 상상하여 보십시오. 두말 할 것 없이 그들은 의심에 싸여 할 바름 모르고 혼란에 빠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나리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대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말하자 다른 이들은 "우리와 함께 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1:3.) 그들은 자기들이 말은 옛날의 소명에도 되돌아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름이 있은 뒤 몇 차례나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던 일과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의 몇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도 합시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이 되던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좋은 곳에 장사지낼 생각으로 무덤에 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덤이 텅 비인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으며, 무서워 하고, 당황하였던가요. 무덤속에 있던 한 천사가 일러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5-6.)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또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므로 거기서 그들이 뵈게 되리라고 이르는 천사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받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상상하십시오! 길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서들

러 가서 알게 하겠지만 사도들은 자기들 말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 가서 그 된 일이 사실임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진
엠폴로마로 가는 촌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 직접 보며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사도들이 함께 모여
날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이야기 하고있을 때에
홀연히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
는지라,

...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
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
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누가복음 24
: 36-40.)

열 두 사도 중에 한 분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다른 제자들
의 말씀을 듣고도 믿을려고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한 주일이
지난 뒤 그리스도께서 다시 열 한 사도들이 집안에 있을 때
에 오셨는데 이 때는 사도중에 도마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
다. 주님께서 사도들 가운데 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
니다. "...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
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도 믿느냐 보지 못하
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28-29)

예수님께서서는 그 다음 오백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자기들
나라내셨으니 이 중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방문하
심을 받고 그분을 위한 섬역에 부름을 얻었다는 간증을 드릴
때에 아직도 생존하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자기들 나라내신 일 가운데 두가
지 다른 중요한 사건은 이 미국 대륙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볼본경을 읽고 레이벤인 선지자 사무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과 부활에 관해서 말할 때 지면
에는 사흘 동안 압록이 내려 덮이며 무섭고 끔찍한 패망이
일어나리라 예언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읍들은 허
물어졌고, 그 주민들이 많이 죽었으며 백성들의 무서움과 애
송하는 소리가 극심하여 그들은 "우리가 이 크고 두려운 날
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선지자들을 돌로 치며 우리들가운
데서 쫓아내지 아니 하였던들, 우리들의 모친과 귀여운 딸
자식들과 어린이들이 목숨을 건졌으리라 ..." (니파이 삼서
8: 25.) 하고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
다.

이 끔찍한 패망이 있을 후에 살아남은 백성들의 무리들
이 바운더를 땅에있는 신전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
늘에서 임하는 것 같은 한 음성을 들었으나 이를 깨닫지 못
하다가 세번재로 소리가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광됨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니
파이 삼서 11: 7.) 하실 때에 비로서 깨닫게 되었던 것

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들은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강하심을 보
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백성들에게 손과 발을 앞으로 내서
보이시며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 나는 태초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하였느
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에 "... 우리가 앞으로 나아
가 ...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차례대로 한사람씩 모두 만져
보고 나서, ... 진실로 저가 예언자들이 오시리라라고 기록한
그 분이심을 알아 증거하였으니," (니파이 삼서 11:10-
11, 15.) 라고 경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이
있은 후 1800년이 되어 우리의 현대 예언자 요셉스미스께서
하신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섬스러운 숲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 바로 이 매우 놀라운 순간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
다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 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습니다.

"... 그 빛이 내위에 머무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직접 그
분과 같이 대화하셨으며 고대의 여러 선지자들처럼 자기 간
증을 피도써 봉했던 이 경문의 시대에 나오신 젊은 예언자의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분을 알고 추종했던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드린 간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 세상에는 문자 그대로 사실상 일어났
던 부활의 사실을 믿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으며 설사 그들 앞에 반박할 수 없는 간증들과 증거
들이 제시돼 있다할지라도 그들이 부활이 어떻게 하여 일어
났는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
은 그들에게는 심히 어려운 일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지 못하는고도 의심을 하며 마치 도마와 같이 부활을 믿지
못한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학에서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
나 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것을 인정
해야 하며 현재 받아들이고 있음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자
연 법칙과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오성을 제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혼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 3: 5.)

우리들이 깨달을 수 없는 사실을 신앙으로 말미암아 인
정하며 세상의 창조주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불사불멸
과 영생을 위해 자신들을 준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총명해
지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예루살렘과 이 미대륙 양 곳에서
그리스도들 직접 보시고 함께 대화하신 모든 분들이 드린 간
증들도 당연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과 그 외에 사람들이 서로 다른 때, 다른 땅에 살면서 똑같은 한 분에 대해 다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증거하여 말하며 행한 많은 예언과 간증이 있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꾸며낸 것이었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상상에서 나온 거짓말이라고 어느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은 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예언자들이 그 축으심과 부활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위안과 기쁨과 안점은 참 어떠한 것인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서 행할 자신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 나라." (모세서 1장 39절)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더 설명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 11장 25-26절)

그분은 또,

"이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 5장 28-29절)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올 죽음과 부활의 때가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며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도 나아가려고 우

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분께서 주시는 답변은 단순하나 가장 분명한 것입니다.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복음을 믿으며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 14장 15절)는 것이 그분의 답변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세주께서 가져오신 기쁜 소식이며 그 분이 성역을 베푸시던 동안에 가르치셨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은 회복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그분이 자기 제자들을 불렀던 것과 똑같이 온 세상에 나가 만민에게 그분의 평화와 선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대로 사는 방법을 열의를 가지고 힘써 배움으로써 불사불멸과 영생을 얻는 일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여 그분의 가르침을 좇아 살며 충실한 자들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간증은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며, 그분의 교회가 오늘날에도 지상에 세워져 있어서 그분이 태하신 예언자들 통하여 지금도 지시를 받고 있으며 경전에서 말하는 예언들은 모두 성취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들은바 "...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하신 그대로 모두가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신을 준비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뵈오며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을 완수하고 난 뒤 무궁토록 그분과 같이 살게 됨에 우리들 자신이 합당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개를 마지막까지 미룸은 영생의 도둑

쥘리 필딩 스미스

대관장단 보좌 및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 이 종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곳에 참석할 수 있음에 무한한 행복을 느끼고 계신줄 확신하오며 각 가정에서 경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말씀드릴려고 하는 바를 축복해 주옵시기를 바라며 기원하는 바입니다.

회개를 마지막까지 미룸은 복음의 원리들에 적용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면전에서 거하는 삶인 이른바 영생의 도둑인 것입니다. 저희들 가운데는 심지어 교회 회원들 중에서 까지 복음의 원리들을 준수하며

계명을 지키는 일을 서둘러 행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 니파이는 말미의 백성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참으로 맑은 자들이 말하기를 먹고 마시고 즐기라. 우리는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라 하며, 우리에

"또한 많은 자들이 이트기를 먹고 마시고 즐기되,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은 죄를 조금 지으면 용서하시리니, 거짓말도 조금하고, 사람의 말을 트집잡아 이익을 얻으며, 하나도 해될 일이 없으니 이웃을 빠뜨릴 함정을 파는등 이러한

모든 입을 행하라. 우리는 내일 죽으리라. 우리에게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매도 뉘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리라." (니파이 이서 28장 7-8절)

여러분은 이 말씀이 세상에게나 "우리 문안에 유하는 객에게," (출애굽기 20장 10점 참조)만 행한 것이라 생각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저희들 교회 회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더우기 선지자 니파이는 우리에게 경고하여 이르기들 말일에는 악마를 쫓아 가는 자들이 많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니파이 이서에 있는 경전의 말씀을 봉독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몇 장, 몇 절만을 가르쳐 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가정으로 돌아가시거든 물론겉을 내셔서 니파이 이서 28장 20절에서 부터 29절까지를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일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재 우리들은 선지자 니파이가 말일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리라고 예언한 것 같이 저마다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주님께서는 저들의 얼골 만물의 죄도 묵과하지 않으리라 하신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핑계를 삼고 "육욕의 담보물"이 되어 자신을 잠재우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 중에는 악마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악마가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저들은 지옥의 고통을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하려"하지 아니하고 지옥이 없다 하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런 일을 가르치는 것을 들어 본 적은 없습니까? 이와 같이 악마는 사람들의 마음에 노역을 일으키고 있으며 교회 회원들은 악마의 간교한 계활에서 온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버릇들은 쉽게 생기나 그렇게 쉽게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악한 버릇들이 다만 하찮은 것들이라 알며, 무덤속에서 때어버릴 것이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진 악한 버릇에 굴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은 무덤속에서 우리 몸이 깨끗하게 되고 부활에서 완전하고 성결케 된 몸으로 우리가 나오리라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무덤속에서 깨끗하게 된다 말하며 이와같이 가르치고는 스스로 자기 행동을 범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마는 이와는 아주 다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가 아들 코리엔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네게 이야기한 회복의 원리가 너를 죄에서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 ...

"정녕 네가 행한대로 네게도 돌아와 회복되리니, 회복은 죄인을 더욱 정죄할 것이요, 결코 죄를 정당하다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엘마 41장 10, 15절)

구세주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 7장 2절)고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그만 형벌은 그렇게 나쁠 것이 없으며 그래서 우리들이 지지받은 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보다는 오히려 거리침없이 기획을 얻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들이 "몇대의 맥"도 피할 수만 있다면 자기들이 요행하다고 생각할런지 모

릅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하는 줄 잊지 맙시다. 죄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우리들이 만약 회개하고 복음의 축복을 받지 않으려 하면 대신에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형벌이란 특히 양심이 번민을 당할 때는 참고 견디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가 고통중에 행복해 질 수 있겠으며, 의안에서 살도록 지식과 권고가 주어졌을 때에 완고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에 고통이 온 것이라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죄인이 고집스럽게 반대하던 죄에 대한 회개의 고리를 배우고 만일에 자기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을 이전에 받아들였던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위대한 수난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필요없게 했으리라고 깨닫는 날에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의 영혼이 이후에 들어 갈 세 커다란 왕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목적은 이들 왕국에 대한 논의가 아닙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별의 영광에는 진실하지 못한 자들 곧 알고는 있으나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교성 41편 1절) 이른바, 거짓말하는 자, 마술하는 자, 간음하는 자, 또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거절하는 모든 자들이 들어가게 되리라 말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달의 영광에는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생판을 하였으며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과 또한 율법없이 죽은 자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해의 영광에 들어가 승영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해의 영광을 받을 준비로서 모든 불의로부터 성결케 될 필요가 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 곧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하여 성별되지 아니한 자도 다른 왕국을 상속받아야만 하니, 달의 왕국이나 별의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교성 88편 18, 21절)

성결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며 충실히 지켜야 하는 특정한 성약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성 84편 44절) "예수에 대한 간증을 받아들여 그의 이름을 믿고, 그가 매장된 방법대로 침례 받은 자들이니

"그러하여 계명을 지키므로써 저들이 씻음을 받고 모든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성임받아 성신을 주는 권능에 인봉된 자의 안수토써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저들은 신앙으로 승리한 자요, 아버지께서 의롭고 참된 모든 자에게 부여 주시기도 약속하신 성신으로 인봉된 자니라." (교성 76편 51-58절, 참조 54-60절) 그러므로 약속을 받도록 성신으로 인봉된 자가 아니며, 의롭고 참되지도 아니한 자는 이 커다란 축복을 바라며,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에 너무 일찍 시작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친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 스스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경고받으며 아주 어릴때 부터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훈계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출생해서 부터 의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면 항상 그 어린이는 의도움을 좇는 추종자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입적부터 찾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때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니파이인들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모반을 하여 거역했을 때 그들이 법을 받았던 일은 그 몇번입니까?

꼭토 밤미암아 그들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심을 그 얼마나 더디 하셨습니까?

"또 저들은 주 저희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우기기를 더디 하셨으니, 그러므로 주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기를 더디하셨고, 저희 환난의 날에 저들에게 응답하시기를 더디하셨느니라." (교성 101편 7절) 주님께서 오늘 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배의 왕국에 들어가며 영생을 받으려고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을 지켜이 지키십시오. 침례와 회개와 영회 안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의식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식들 자체가 우리들을 가만히 승영의 자리로 올려 주지 않을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은 각기 주님의 계명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회원은 성약을 받은 사람인데 왜냐하면 침례는 "새롭고 영원한 성약"이기 때문입니다. (교성 22장 1절) 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일을 충실히 행하며 합당한 생활로 자신을 증거할 때는 다른 성약을 받으며 스스로 자기를 후사로 만들어 줄 다른 책임을 짊어지고 "장자의 교회"의 회원이 될 특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손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자들입니다. 교회 회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증만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짐은 가치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노력없이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번히 "사람이 부지하고서는 구원 받을 수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듣습니다. 무엇이 대한 부지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철학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 곧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원리와 의식에 대한 부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마땅히 이해해야 하며 그 뿐 아니라 그대로 생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 그 자체는 우리들 구원하지 못함 것입니다. 그에 대한 순종이 우리들 구

원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증만한 지식을 받을 것이며 그와 더불어 지혜, 권능 및 지배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들의 증만함은 오직 주님의 신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사랑함)이 지식의 근원이나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와 혼계를 멸시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이 때로부터 기도와 금식을 계속할지어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왕국의 고리를 서로 가르치라." (교성 88편 76-77절)

우리는 또한 다함께 선지자 엘마가 하신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보라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이 생애의 나날은 사람이 저들의 일을 수행할 날들이라.

"내가 이마 너희에게 이른대로 너희가 많은 증거를 가져오는데 너희의 회개를 마지막까지 미루지 않기를 바라노라. 영생을 준비시킬 목적으로 주어진 이생이 지나며, 보라 우리가 생을 누릴 동안 시간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아무일도 할수 없는 밤의 어둠이 다가 오느니라.

"너희가 긴박한 위기에 처하고 난뒤에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할 수 없으리라. 참으로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리니, 이 생애에서 너희 육신을 다스린 그 영이 영원한 세상에서도 너희 몸을 다스리리라." (엘마 34장 32-34절)

주님께서 어느 때든지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십니다. 만일 우리들이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 곁으로 가까이 나오실 것입니다. "...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교성 88편 63절)

우리의 주된 환난은 바로 우리들이 부지런히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함은 결연에만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면과 사랑이 우리들의 안내자가 되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기 원하며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가르침

알빈 알. 다이어
대관장단 보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이 훌륭한 교회 총회의 감격과 감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맨케이 대관장님께서 이 총회에 증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십자가 니파이는 한때 사람의 가르침으로 인해 속임을 받은 인간의 확 있는 상태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는 경고하기를,

"... 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자에게 확 있을진저" (니파이 이서 28장 26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만일에 사탄이 "인간의 영육을 멸망시키려고" (교경 10편 27절) 침투하여 온다고 경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품위와 도덕적 표준에 대한 관념을 타락시키고 있는 악한 시대의 조류에 처하여서 이같은 경고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찌기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창세기 3장 22절)라고 선언된 도덕적인 자유의지권을 인간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선포가 의문이 생겼으며 인간은 저들이 "새로운 도덕"이라 하며 선정해 놓은 여러 가지 일을 일으켜 도덕적인 자유의지를 사람들의 관념에 의지하여 파괴하려 열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비뚤어진 교육 계획에 대한 나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타락한 사회 질서를 가져오는 도덕의 붕괴를 직 접 우리들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덕"은 옳고 그릇됨과 선과 악의 구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인간의 욕구가 어떻게 바뀐 것이든 상관치 않고 그 욕구에 따른 행동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준칙을 바꿔 놓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같은 관념의 가르침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개인을 불의하게 지배하는 원리에 기초를 둔 거대한 통제와 무거운 짐을 진 사회로 이끌려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철학은 이러한 일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계승하여 나가기를 바라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들 거짓되고 불투명한 목적을 가진 계획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각계의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부모들과 지도자들의 깊은 관심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학원에서 성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성교육 또는 가정생활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성교육 계획자들은 저항을 의식하며 부모들과 사회의 반대에 대처할 치밀한 대책을 강구해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중들은 각성을 하고 이같은 자료들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 공립학교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같이 생리학이나 위생학 분야에서 보다 확고하게 전

전한 도덕적 가르침의 기틀을 세우도록 지대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 교육 위원회와 미국 의사 협회가 심숙기 젊은이들에 대한 교육 계획을 승인한 것은 미합중국 성문제 교육 심의회 (SIECUS)로 알려져 있음)나 학교 보건 교육 연구회 (SHBS)로 알려져 있음) 및 기타 다른 기구들과 함께 특히 가정생활 교육 곡정안에 통합된 기구들의 활동을 촉진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던지며 이름 있는 출판사들은 전문적인 준비를 한 자료와 영록 및 여러 종류의 교재 보조물들을 가지고 아직 개척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선풍적인 인기로 팔려나가므로 그 속에는 무서운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극히 연소한 젊은이들의 생활에 나타나는 거짓된 개념은 그들이 정서적으로 성숙되어지기 전에 생식에 관한 사실들을 가르치려는 생각에서 비롯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성의 무지함을 적게 하며 사생아 임신, 성병과 이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감소시켜 주는 근거로 학원에서 잘못 가르쳐진 성교육은 하등의 건전한 결과의 바탕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의 경험은 그 반대의 결과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이야 어디에서 나왔든지 간에 다른 나라들의 비뚤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벌써 어느 지역에서는 성교육이 학원에 침투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연구하여 시험 단계의 계획을 시작하였습니다. 전국의 입법자들은 성교육을 합법화 시킬 법제를 제정하기에 이르고 있으며 다행하게도 어떤 분들은 그 법률 제정을 저지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투르 지에 소개된 한 기사는 미국이 이 새로운 질서에 너무 뒤떨어져 있다고 추정하며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학원을 완전한 성의 노출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자들의 왜곡된 도덕 관념의 내용을 신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부모들의 책임 중 어떠한 것을 맡을 복지국가가 필요함을 이 기사는 제시하여 줍니다. 제가 인용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 국가는 부모들의 많은 경제적 부담을 말아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같은 사회가 되는 과정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나라에서 유력한 가능성을 가지게 될지도 모를 추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성교육에 있어서 몇 개의 지역적인 계획은 대단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미합중국 내에서의 지역적 계획은 대부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피임 사회가 되어 있으나 산업계와 자동차 업계가 조금씩 후퇴하는 것처럼 뒤로 물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새로운 도덕"은 교사나 부모들의 도움없이 젊은이들 자신이 자기들의 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도덕인가 무엇이 도덕이 아닌가 또는 전연 도덕에
관련하는 것인지 아니지는 학생 자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놀랍고 황폐한 일
은 성교육을 도덕적인 책임감이나, 무서움이나, 금지나, 그
리고 감정적 접제에서 완전히 배방되어 지는 것같이 분리시
켜 가고 있는 노력인 것입니다.

속달한 사람이나 '속달치 못한 사람이나 누가 사용 하든
지 인간의 생식기를 그림으로 그려 그 기능을 설명하는 여하
한 가르침과 성도덕의 표준에 직접 반대되는 어떠한 가르침
도 복음과는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가
르침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성에 대한 존경심
과 결전에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삶과 출생과 아버이 됨에도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성교육으로 학원이 완전히 물들어 있는 다른 나
라의 경험과 결과에 의거해서 장차 미국에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리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통계는 외국의 어
느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85%.¹

결혼전 성경험을 가진 사람이 98%.²

결혼식 때 임신한 신부는 50%.³

무제한의 자유토은 유산을 원하는 여성이 대다수. 4

이런 나라에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성교육의 총동으로 원
인이 되어 발생한 성병에 관해서, 한 보고서는 "임질과 매독
이 세계의 어느 다른 문명국 보다도 더 많이 퍼져 있다."는⁵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보고서는 간단히 그
사실을 "파국적"인⁶ 것이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
교육의 계획자들은 성교육을 통하여 성병의 범람을 억제할
것이라 말하며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생아 출생에 관해서 미합중국 성문제 심의회의 선전에
따르면서 성교육으로 그 수가 감소될 것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예를 든 나라에서 보면 거의 50%까지 증가했던 것입
니다.⁷

이러한 제도에서 어떤 실질적인 유익을 구하려면 아주 어
ल्प적부터 이른바 "세뇌 작용"을 행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에게는 도덕적인 결과를 의식하지 않고 선택을 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새로운 도덕"으로 향한 움직임은 감수성 반응 훈련이며,
이같은 훈련은 인간의 행동을 형성시켜주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면서 복음의 원리들과는 모순되게 이용되고 있
습니다.

감수성 반응 훈련의 어떤 방법들은 도덕, 예절, 그리고
시안다음의 정통을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의 감응 히스테리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특히 젊은이들
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감수성 반응 훈련과 또한 개인의 인격과 사생
함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상호간의 소품을 위해 계획한 다른
근중 심리학 (단체 훈련, 집단 역동학, 자가 비판, 대항 오
본회, 자율적인 정치적 생활을 위한 회의 및 인간의 잠재력
연구 실험술 등에서 행해진 바와 같은 것)을 조사할 때에 집
단이나 합의 결정을 강조하며, 불운한 개인에게 일어난 사실

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실 가장 큰 은사의 하나
는 인간의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영적인 수양의
기초이며 이 원리에 바탕을 두고 우리 나라의 헌법이 제정되
었으며, 헌법 우리 학교 제도의 기본이념이 부과되어 있는데
도 우리들은 그것이 감수성 반응 훈련의 교육 방법에서 위태
롭게 되어 가고 있음을 봅니다.

개인의 권리가 어떻게 하여 아래로 떨어지는가를 나타내
보이는 집단 비평의 기교 중에 주요한 세가지 특징이 있습니
다.

1. 자기들의 행동을 타인의 앞에 내어 놓고 조사하려 참
여자들이 조성한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는 독립 독립심을
낮추어 준다.

2. 개인에게 집착하고 있는 낡은 가치를 고정시키지 않
고 파괴하며 가장 강력한 집단의 특성에 순응하는 집단 결
정을 대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3. 점차도 회원들은 도덕적인 반 작용을 염두에 두지 아
니하고 아무 윤리도 없는 소위 "새로운 도덕"이라 일컫는 것
을 적용하며 새로운 반응을 가지고 실험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만일 치료가 고통을 받는자에게 좋은 것이라던
기능을 잘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좋으며 또는 그 보다 더 좋
은 것임은 확실하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러한 말에 대하여 저는 언급할 때에 건강한 사람에게 마취약
이나 수술을 처방하는 의사는 확가 있을 것이라 말하고 싶습
니다.

집단 비평회에서는 모택동의 홍위대가 발전시킨 방법이
암시되고 있는데 이 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대중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도록 권고 받으며 전혀 의지의 파괴를 위하여 서
로 비난할 것을 권고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역시 즐
거움과 놀이에서 얻는 "환희를 통한 힘"에 관한 나치당의 방
법을 생각합니다. 감수성 반응 훈련은 모든 공산주의 국가
에서 이용하고 있는 극악한 술책인 것입니다.

성교육과 감수성 반응 훈련의 교육 방법이 남용되었을 때
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의 벽을 무너지게 할 뿐 아니라 오
히려 개인 보다는 집단의 결정을 위해 기술적인 기교를 대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괴하려는 경향으
로 기술어지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그 개념은 악한 것입니다.

간중회, 신권회와 선교사 보고회, 구두 평가회 및 자기
평가와 면담과 같은 교회의 품행과 행동에 대한 방법들은 개
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의 권리를 보존
해 줍니다.

감수성 반응 훈련은 우리 교외 학교나 연구원에서 가르치
는 교육 방법으로서의 제외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면 흥미로
울 것입니다.

다른 사악한 세력과 연합하려고 새로 물결 일듯이 일어나
고 있는 세번재의 극심한 움직임은 이미 부도덕하게 개방되
어 있는 것을 자유화 시키려고 시도하는 혼인법에서의 신축
성을 보다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교육성의 한 의표 담당 권리는 자기의 견해로서 부정을
설명하여 믿하기를 혼인외의 부도덕한 행동에 관련하는 것
이 정숙치 못한 것은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느 유명한 판사는 약 25,000 건의 이혼 사건을 다룬 경험을 통하여 조혼의 많은 숫자가 미숙하게 행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로는 "만약 사람들이 자동차나 주택을 사려면데 점심을 쓰는 것만큼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그들의 생활은 한층 더 부유하게 되었을 터인데." 하고 못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분은 자기 말에 결론을 맺으면서 자기의 지당한 충고도 아무 소용이 안되는 "결혼의 수난"의 시기가 있으리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그분은 "특히 피임약이 이처럼 널리 보급되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결혼의 수난에 관한 이야기들 더 많이 들게 된다."⁸ 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수난에 빠진 결혼 제도의 도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에 꼭 적합한 생각은 "새로운 도덕"이라는 개념이며 이는 우리들이 마땅히 경계해야 하는 사악한 원리들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음주" 활동은 타성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의사 협회가 발간하는 오늘의 건강이란 잡지는 "자녀들이 음주를 배워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배심제 토론에 참가한 임원들은 전원이 어떻게든지 해서 젊은 시절에 비록 네살 밖에 안된다 하더라도 알콜 중독의 예방책으로서 알콜에 관한 소재가 되어야 한다는데 찬성했습니다.

이느 배심제 토론자는 다음과 같이 주석을 하였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아주 건전한 환경을 마련해 줄 책임이 있다. 이것은 음주를 포함하는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다."⁹

이들 유명한 전문가들에게 까지 이같은 계획이 불행을 바로 잡기 위해 잘못 시도되므로 불행은 보다 심각하게 합법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심교육, 감수성 반응 훈련, 젊은이들 음주, 그리고 도덕적인 품위와 의토움에 도전하고 있는 결혼의 성스러움에 대한 어떤 신축성에 의하여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사악한 영향들에 전연 무감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교육 위원회, 교과서 편찬 위원회 및 관계 입법기관을 통해 아버지들이 참여해서 역할을 하는 부모 평의회를 조직하여 이와 같은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노력을 모으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빛과 진리의 원리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아버지들이 가진 주된 역할을 상기하기 원합니다.

다음의 훈계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변전에서 네 신임이 두려워지리니." (고성 121장 45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끄시기를 복음의 율법의 규범에 따르는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거듭 너희가 속지 아니하도록 모든 일에 규범을 주노니, 이는 사탄이 땅에 널리 퍼져 있어 백성들을 속이려 다니는 연고니라." (고성 52편 14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다음의 악마에 관해 말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들시다. "... 그가 장차 말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범게코저 할 것이며" (다니엘 7장 25절)

저는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 처소를 마련하려 한다면, 또 만일 우리들이 이 시대의 악마들에 대적하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려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의의길을 걸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규범속에 나타난 생활 방법에 가장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의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각 주

- 1 제이. 토버트 모스킨 슝, "피임 사회", 투즈지, 1969년 2월 4일, 53페이지.
- 2 전계서 50 페이지.
- 3 유. 에스. 뉴우스 앤드 워드 리포르지, 1969년 3월 17일 48 페이지 이하 참조.
- 4 투즈지, 앞서 인용되었음. 50페이지.
- 5 미국의 여론, 1969년 3월호.
- 6 유. 에스. 뉴우스 앤드 워드 리포르지, 앞서 인용했음.
- 7 전계서 51페이지.
- 8 톰 윌리엄즈 판사 슝, "정보 보고서"에서 인용, 페레이드지, 1969년 2월 16일, 8페이지.
9. 오늘의 건강, 1969년 2월호, 46페이지 이하 참조.

진리의 말씀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교훈

십이사도 정원회 리차드 엘 이반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기름부음을 입은 자라.

하나뿐인 유일한 하나님께 향한 길을

당신이 몸소 걸어 우리에게 보여 주기 위하심이다. ①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밀줄을 쳐 기억할 말이다. 당신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대단히 사랑하시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 하기 위하여 살다 죽으신 당신의 사랑. 이것은 아마도 가장 위대한 것이리라 사료되는 다음의 위대한 교훈은 우리 모두에 대한 우리 모두의 사랑이다. “사랑이란 기독교 가르침 중 가장 어려운 교리이다.”^② 라고 윌리엄 펜은 말하였다. 이것은 온 생애에 걸쳐 가장 어려울 수도 있으니 사랑이란 이기가 전혀 아니며 이기 외의 무엇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할 때 그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언제나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누가 누구를 사랑할 때 - 매우 진지하게 사랑할 때 - 그는 언제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행하려 할 것이지 이기적이라던가 자아만을 생각하는 것은 피하려 할 것이다. 당신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보내 주셨으며 복음을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생으로 향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어느 것이나 우리에게 좋은 결실을 맺도록 주신 당신의 계명과 가르침을 따르므로서 당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 주실 것을 바라고 계시다. 기쎬케 마치니는 “니의 조국을 사랑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가정이다. 국가를 세워 위대하고 아름답게 하라. 인류를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네 생애의 반려와 주위의 사람을 사랑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 네게 사랑스러웠던 죽은 자와 네가 사랑하던 죽은 자를 사랑하라.”^③ 또한 네가 앞으로 다시 보게 될 참석치 않은 자를 사랑하라. 지금이 고향에 돌아오는 시간, 행복의 시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시간, 친절의 시간, 충실과 감사의 시간, 사랑하는 자가 가까이 오는 시간,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시간, 또한 진실하게 이렇게 살므로서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도록 하여 주셨으니 이들은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은혜이심에 감사하는 바이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④

① 에드워드 피. 킴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심” 중에서

② 윌리엄 펜 “고돌의 열매” 중에서

③ 기쎬케 마치니 “이태리의 청년에게” 중에서

④ 욕기 19 : 25

진리의 말씀은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600기로 싸이클의 서울 중앙 방송국 제2 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560기로 싸이클의 AFKN에서도 주일 오전 10시 5분부터 방송되고 있습니다.